

善心공약 국가파탄 부를 위기

긴급진단 — 6·2 지방선거 民主主義와 포퓰리즘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공약 등 국가부채만 늘리는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반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은 실종상태며 이같은 현상은 국회와 정당, 관료, 언론 등 제도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언론인회는 4월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와 함성득 고려대 교수를 초청,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주제의 대담을 가졌다.

홍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포퓰리즘에 한 번 중독되면 치료가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논설고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상무·문화일보 사장)는 “노무현 정권 때 포퓰리즘 정책들을 많이 쏟아냈으며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같은 안보 분야에서도 민족주의와 자주국방이란 이름 아래 감성적 포퓰리즘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지난 김대중 정권 말기 150조원에서 노무현 정권 5년 사이에 150조원이 더 늘어나 3백조원에 달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것도 포퓰리즘 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도 우파개혁을 하지 않고 민노당이나 민주당 정책을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를 발전 시키지 못하고 인기 영합 정책을 펼치다 보면 나라 빚만 늘어 재정위기와 국가파탄을 불러온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와 함께 오는

南 時 旭 對 談 咸 成 得

언론인·세종대 석좌교수

고려대 교수·대통령학

사회 : 文明浩 대한언론인회 논설고문

정리·사진 : 崔熙助 본보 편집위원 (중부대 초빙교수)

때 : 2010년 4월 21일 곳 : 한국 프레스센터



대담하고 있는 南時旭 교수(왼쪽)와 咸成得 교수.

盧정권때 국가부채 300兆로 늘어 政策보다 지역연합 우선이 문제

2012년 말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데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공약 말고는 정책다운 공약이 안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대통령학)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질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면엔 지역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연합에 의해 선거의 승패가 판가름 나다 보니까 정책보다

지역연합이 우선시되고 지역연합에 의한 포퓰리즘이 성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 교수는 특히 “국회나 정당,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터넷에 사 이비에 가까운 언론들이 밀고 들어와 선동적으로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

고 분석했다.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이 선정적 감정적으로 써 내려가는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이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채 포털에 들어가 정통성과 합리성을 인정받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 남시욱 씨는 “정당이나 국회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은 앞 다퉈 추진하고 인기 없는 정책은 외면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먹혀 들어간다”며 “사익을 추구하려는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심성 공약은 여 야가 똑 같으며 여당이 더 비판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관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은 양날의 칼과 같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되 무책임한 선동을 단호히 경계하면서도 민중, 민주국민, 풀뿌리 민주주의는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교수는 “포퓰리즘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모든 국민이 좋아하는 덜 내고 더 받는 정책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채만 쌓이고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을 치유하려면 민주화 이후 소외 계층의 분출하는 욕구나 갈등을 국회나 정당 언론이 걸러 줄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당은 정책 정당으로 거듭 나고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 하며 언론은 소유와 편집을 분리, 편집권이 독립하고 포털이 언론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4]

2·3면에 대담내용 지상중계

대한언론인회 대토론회

6·25와 한반도 안보

5월19일 프레스센터 19층

2010년 올해는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이 일어 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 한반도는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천안함 피격 침몰 등 한반도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적지 않은 원로 언론인들이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한 대한언론인회는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본회 회우들과 언론계 사회단체관계자 대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6·25 전쟁 60주년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가. 일 시 : 2010년 5월 19일(수) 오후 2시~5시 30분

나.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다. 주제발표

1) 제1주제 : 6·25 전쟁과 한반도 안보

발표자 : 김희상(전 대통령 국방보좌관·현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토론자 : 이정린(전 국방부 차관)

오건환(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2) 제2주제 : 남북언론인 생사확인 되어야한다

발표자 : 도준호(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현 명지대 초빙교수)

토론자 : 이애란(탈북여성 첫 박사·경인여대 교수)

이태영(KOC 국제위원회 위원)

※ 사회 : 문명호(본회 논설고문·전 문화일보 논설주간)

포털등 선정적보도 가장 큰 문제

긴급진단 — 6·2 지방선거 民主主義와 포퓰리즘

文明浩 먼저 포퓰리즘의 원인을 짚어 보고 그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대중 영합주의 때문에 얼마나 큰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포퓰리즘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인이나 국민 모두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나 등 네 파트로 나눠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대중 영합주의로 일컫는 포퓰리즘이 정치 뿐 아니라 경제, 교육, 복지, 심지어 통일 문제에까지 만연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19 학생혁명 50돌 기념사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인기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기대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 남미를 많이 예로 들어 말 합니다. 거기서 실패 사례를 보면서 왜 우리 사회에 아직도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지, 원인부터 짚어 주시죠.

南時旭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을 간단히 나쁘다고만 하기엔 민주주의의 내재적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포퓰리즘 요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수도 있고 아주 건실한 숙의(熟議)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노무현 정권때 포퓰리즘적 요소가 많았다고 봅니다. 본인은 나중에 다른 얘기를 했지만 재벌 기업을 해체해서 그 주식을 노동자들에게 나눠 주는 얘기를 국회 속기록을 보면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차츰 바뀌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좌편향 논리에 빠져 있었던 같아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으로부터 한국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기로 한 사례는 순진한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한 대표적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 미국 사람 바짓 가랑이를 더 이상 붙들고 늘어질 수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또 한국의 일부 우파세력이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 누적된 국가 부채가 150조 원 가량이었는데 노무현 정권 5년 사이에 150조 원이 더 늘어나 300조 원이 되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국가부채의 급증은 인기 영합 정책이 빚은 대표적인 국민피해사례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기 영합정책이 반드시 나쁘냐, 하는 문제는 치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포퓰리즘을 하다보니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어져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명박 정부 자신이 우파 개혁을 하지 않고 민노당이나 민주당 정책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나라 빛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소외 계층 욕구 제도권서 수렴을 말초적 감정 자극 선거운동 판쳐

전문가에 따르면 국가부채가 지금 국내총생산(GDP)대비 34%라고 하고 연말에는 50%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재정 위기가 우려된다는 얘기죠. 야당에선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 급식비 1조 5천억원을 무상으로 하자고 합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습니다.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기업 감세 면세를 폐지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총협회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없으니 경제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악순환 밖에 더 일어나겠느냐, 합니다. 국가가 돈을 평평 쓰다보면 남미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대계를 망치게 됩니다.

咸成得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가 안 됐느니, 민주주의 이후의 위기이니 합니다. 민주화가 되면 바로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민주주의가 왜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공고화하지 못한 이면엔 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과 연관된 지역이 선거행태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지역 요소와 밀접하게 얽혀 있을 뿐 정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역연합에 의해 선거에 지고 이기다 보니까 정책보다 지역연합이 우선 중요하고 지역연합에 의해 포퓰리즘이 생겨납니다. 지역주의에 갇힌 국회나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려면 국회나 정당이 제대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언론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그동안 제도적 기관인 국회 정당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못

내고 소양과 정치지식이 있고 사회적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 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미국 선거제도를 보면 대단히 많은 여과장치를 두고 중우정치나 감정적인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자 등록제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이후 분출하는 소외 계층의 욕구를 제도적 기관들이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과학기술에 의한 인터넷이란 포털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언론을 합리화 하고 정통성을 부여해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수도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이버 민간단체(NGO)와 사이버 언론들이 인터넷 광장을 통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 폭발적인 포퓰리즘이 만들어지고 감정과 감성에 의한 정치가 됐습니다.

남 선생님이 말씀하신 전시 작전권 환수의 경우도 비용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자주 국방이란 대단히 듣기 좋은 이름을 내걸고 젊은이 들의 감성에 다가간 대표적 포퓰리즘이었습니다. 가장 감정적인 포퓰리즘이 노무현 정권에서 복지를 위해서라며 공무원 수를 엄청 늘려 놓은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덜 내고 더 받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좋아하고 포퓰리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덜 내고 더 받게 하는 정책이죠. 결국은 그게 모두 부채가 되고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 안기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해결 방법은 국회와 정당이 제대로 활동해서 지역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 이후 분출하는 모든 욕구와 세대간, 남녀간, 이념간 갈등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수든 진보든 언론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천안함 순국용사 조문 - 종군기자 기념비 참배



← 대한언론인회 회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일동은 4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천안함 순직 장병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사진=정운중 상임이사

→ 본회 회원기 회장 등 전현직 기자 40여명은 4월 27일 문산을 통일공원안에 있는 한국전 종군기자 기념비를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본회에서는 종군기자 출신의 계성일 김진섭 정준모 지갑중 한영섭 씨등 원로 회우와 김영호 박식 송두빈 송효빈 이형균 정성진 회우등이 참석했다.

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언론의 감시기능 확립 시급하다

긴급진단 — 6·2 지방선거 民主主義와 포폴리즘

2면에서 이어집니다.

南時旭 오는 2012년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금년 예산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7.9%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전 정권에서 육군의 경우 현행 24개월인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을 오는 2014년 까지 18개월로 6개월을 단축토록 해 놓았어요. 한나라당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면 전력 증강과 인적 자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축기간 6개월을 4개월로 2개월 감축하려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인기 있는 건 하고 인기 없는 건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폴리즘이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은 유권자의 투표행태입니다. 유권자들이 개인적 이익과 종파, 지역, 집안과 가족간 이익을 앞세워 투표를 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아직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 하고 민주주의 훈련도 안 돼 있어요. 능력이 결여된 지도자가 유권자의 수준에 편승해 공약을 남발 합니다. 뒷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선심성 공약은 여야가 똑 같습니다. 여당이 더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화뇌동하는 관료의 책임이 큼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의 책임도 크지요. 민주주의는 소수 지배 원리입니다. 소수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당장 문제가 눈 앞에 닥친 지방선거입니다.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咸成得 사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엔 인종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엔 지역이 문제입니다.

정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정책이 나와 보아야 비슷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아무도 정책을 몰라요. 교육감도 그렇고 정책이나 인물도 안 되고 유일한 수단이 홍보 전략,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노무현의 눈물이라든가, 노란색, 말초적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감성적 선거운동이 있을 뿐입니다.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발돋움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비전을 가지면 포폴리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못 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든가 박정희의 “잘 살아보세”라는 산업화 의지 같은 것 말입니다.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이 좌파이긴 하지만 그의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 빈곤층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늘려가는 정책으로 양극화 문제 해결에 다가가기 위한 비전입니다.

포폴리즘을 해결하려면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도자가 비전을



남시욱 교수



남성득 교수

갖고 정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서울 시내 어떤 자치구의 경우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3만가구가 극빈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폴리즘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됐습니다.

지도자의 비전



문명호 고문

이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입니다. 국민과 언론, 정당에서 걸려내야 합니다. 요즘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언론 시대에는 제대로 된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포폴리즘이 사라집니다.

文明浩 포폴리즘이 깊고 널리 퍼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咸成得 인터넷에

左右막론 인기영합정책 쏟아내 양극화 해소 중산층 육성이 관건

에 따른 정당 정책 개발과 실생활 정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면 중산층이 늘어나고 돈이 생겨 균형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포폴리즘이 발 불일수가 없습니다.

南時旭 인기에 영합하고 시대 역행적인 포폴리즘은 노무현 정권 때만은 아닙니다.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도 포폴리즘적 요소가 큼니다. 국민적 통일 염원에 편승한 것이지요. 좌측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 측도, 언론과 야당, 지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포폴리즘이고 경계 대상인 포폴리즘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관된 프로그램이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 아이템, 단기 인기를 노린 일부 계층을 위한 당의정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장래를 망치는 요소 들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구정을 ‘민속의 날’로 지정해 이중과세로 되돌아간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咸成得 남 선생님께서 재미 있는 얘길 해주셨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도 당시 남부지방에서 보면 포폴리즘이었습니다. 포폴리즘은 정치인과 정당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나타납니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장밋빛 공약이 모두 포폴리즘입니다. 실현성이나 구체성

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감정과 감성이 중요하고 중시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포폴리즘이 너무 만연합니다. 몇 년 안에 해결해야 하는데 세종시 문제가 그렇습니다. 원안부터 포만 생각했지, 구체성이나 실현성이 없는 포폴리즘으로 출발했습니다. 수정안도 포폴리즘적 요소를 품고 있다고 봅니다. 2012년이 되면 또 바뀔지 모릅니다. 충청권이란 지역 요소가 얹혀 표를 의식하고 감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더 문제입니다. 세종시 문제는 공론화시키되 아예 2012년에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文明浩 포폴리즘이 민주주의에 필수 불가결한 긍정적 요소라고도 하고 정반대로 위협요소라고도 합니다. 토크빌은 저급한 민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같은 포폴리즘이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지, 혹은 창조적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인지, 짚어 보죠.

南時旭 포폴리즘은 우익의 경우 파시스트 히틀러 등장이 그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1차대전에서 패한 독일국민들이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을 바란 결과 합법적으로 집권한 포폴리즘 정권으로 출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좌익에서 보면 소련 공산당 정권을 대

표적인 포폴리즘 정권으로 꼽을 수 있지요.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회가 양극화하고 약자가 있는 한 여러 가지 포폴리즘이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포폴리즘은 양날의 칼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무책임한 선동을 경계해야 하지만 민중, 민주 국민, 풀뿌리 민주주의는 배려해야 합니다.

咸成得 포폴리즘은 소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지요. 양극화 해소가 중요 합니다. 중산층이 늘어나면 포폴리즘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南時旭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文明浩 포폴리즘에 한 번 맛 들이면 어떤 약도 효험이 없다고 합니다. 페론의 아르헨티나나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최근엔 태국의 탁신정부가 모두 포폴리즘 정책으로 국가 재정파탄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지요. 그런데 이 같은 폐해를 보고서도 우리 사회에 왜 포폴리즘이 만연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咸成得 언론이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편집권이 독립해야 합니다. 그런 언론이라야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사익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포털의 책임이 큼니다. 엄청난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미국에선 포털의 명예훼손은 포털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떠안습니다. 돈을 내서 걸러냅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포털의 책임성이 강조돼야 합니다. 야한 사진같은 건 이제 우리 나라 포털도 스스로 여과합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정보나 명예훼손 관련 기사는 왜 그냥 놔 두느냐, 하는 겁니다. 책임 있는 언론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南時旭 근본적으로 포폴리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되죠. 언론, 사회단체, 반대당, 지식인, 대학 교수 등이 어떤 힘에 의해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咸成得 감성의 위험을 인식시키는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2의 계몽 운동(Enlightenment)이 절실합니다. 멘토링(mentoring) 시스템을 통한 계몽주의 운동도 좋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 중산층이 늘어나도록 언론과 포털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南時旭 영국의 신문은 사실이나 칼럼을 통해 제4부(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의 역할, 즉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을 스스로 강조합니다. 미국의 판례도 이러한 언론의 기능을 정당시 합니다. 언론이 독자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咸成得 재벌과 언론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보에도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文明浩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www.baekje.org

1400년전 대백제의 부활

BC18~AD660년까지 고대국가를 형성하며 동아시아 문명교류의
찬란한 빛이 되었던 문화왕국, 해상왕국 대백제

대 백제가 그 후손들의 터전인 대한민국 충청남도에서
『백제문화단지』 개관과 함께 대백제의 꿈을 새롭게 펼칩니다.



2010 Great Baekje World Festival

세계대백제전

2010. 9. 18 ~ 10. 17(30일간) / 개막식 9.17(금)

충청남도 부여군, 공주시

주최: 충청남도 부여군 공주시

주관: 2010세계대백제인조각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THE LEAGUE OF
HISTORICAL CITIES
세계역사도시연맹

2010
대충청방문의해

2010
세계문화유산
2010 WORLD CULTURE HERITAGE YEAR



특별기고



송대성

• 세종연구소장

지난 3월 26일 우리 해군의 '천안함 침몰' 군 안보사고 발생이후 우리 국민들은 본 사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어느 정도 공개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과 혼선을 빚게 되었다. "국가적 재난사항이나 군 안보사항들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과 "비상상황 혹은 안보사항일수록 국민과 정부 간 신뢰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양 주장들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필자는 군 안보 관련 정보 보호와 공개 문제를 고찰기 위해 독일연방보호청(MAD), 스페인 군방첩본부(CESID), 이탈리아 군 정보 및 보안본부(SISMI), 프랑스 국군보안국(DPSD) 등 선진민주화 된 각국 정보기관들을 방문하고 그 실태들을 파악하여본 경험이 있다. 그 실태들을 파악한 후 본 필자의 결론은 첫째, 각국은 그들 군이나 정부 당국이 어떤 상황에 대해 일단 국가안보사항 혹은 군 기밀 사항이라고 보안을 천명하면 그 나라 언론이나 그 사회문화는 더 이상 언론공개 내지 자료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둘째, 천명된 군 기밀 사항들이 보안을 위반하고 공개되는 경우 군 정보기관들은 그 공개자의 내·외국인 및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그들 고유의 법에 의거, 공개내용 사실여부와 위법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민간법원에 제소하며, 셋째, 그들 각국이 처해 있는 '특수상황'들을 고려한 비밀의 합리적 등급 결정, 객관성을 생

정보 공개와 국가 상황성

명으로 한 비밀내용에 대한 국민들 신뢰획득, 비밀의 권위고수 등을 위한 지성적인 노력 경주 등이었다.

각국이 처해 있는 '특수상황'을 고려한 비밀의 합리적 등급결정이란 같은 내용의 비밀일지라도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I급 비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비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심각한 주적(主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들의 비밀을 어느 정도 과도분류하는 경향이 있고, 심각한 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그들의 비밀을 다소 과소분류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소총을 생산하는 공장

하는 주장 혹은 행위들을 내포하고 있는 속성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적성문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반미친북적인 성향을 보지(保持)하며, 한국의 국방안보역량 훼손을 위해 노력하고, 한미이간(韓美離間) 및 관민이간(官民離間)을 위해 노력하는 속성의 문화를 의미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와 같이 이러한 이적성문화가 침습하여있는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국가적 재난이나 안보관련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정보들은 절대로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 이적성 문화는 우리의 국가적 재난 혹은 국가안보관련

적인 예가 지난 4월 4일 청계천 주변에서 10여명의 대학생들이 "천안함사건은 북한인민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시위를 한 경우다. 국제적인 공조 속에 최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조사를 착수도 하기 전에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모종의 지령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지 않으면 평소 이적성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미리 짐작하고 선조치한 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정책 중 '남한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도과제'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국가적 재난 및 안보관련 중요정보들은 그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적 지도과제란 항목 속에는 이미 구축하여 놓은 남한 내 지하조직, 통일전선 등을 중심으로 남한에서 발생하는 각종 국가재난 혹은 국가안보관련 정보들을 최대한 왜곡·날조하여 발생한 상황들을 최대한 악화시키면서 관·민 이간, 한·미간 이간, 폭력·비폭력 배합투쟁, 정치·경제 배합투쟁 등을 합치게 지도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혁명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도과제는 남한사회에 존속하고 있는 이적세력들에게 수명(受命)되어지고 이적세력들은 수명된 내용에 따라 각종 투쟁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적성 문화가 사회 곳곳에 침습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재난 혹은 천안함 피폭사건과 같은 국가안보 관련 중요 정보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국민과 정부 간 소통' 등 순수한 의미만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이적성 문화는 이러한 순수한 의미에서 공개되는 중요 정보들을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악용하는 능수능란한 능력과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4]

利敵性문화 침투해 있는 우리사회 함부로 공개하면 최대한 악용 가능성

시설자체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보안지대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공개지역이 되어있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은 상기 각국들이 그들 특유의 '국가적 상황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그들의 비밀등급을 분류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의 국가적 상황성이란 결국 특정정보의 공개여부가 그들 국가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분석한 후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군 안보 관련 중요 정보공개여부 논란은 우리 한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소위 '이적성문화(利敵性文化)'라는 가장 중요한 특성적인 상황성을 간과(看過)하면서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적성 문화란 우리의 실제적인 적을 이롭게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가 되면 그 공개된 정보들을 최대한 왜곡 혹은 변질시켜서 적을 이롭게 하는 방향에서 이용하기 때문이다. 공개된 정보들은 정부와 국민 간 이간, 군과 국민 간 이간, 국민과 국민 간 이간, 한국인과 미국과 이간 등을 획책하면서 반정부, 반군, 반미투쟁 등 이적성 목표들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악용되어진다. 그 극명한 사례가 2002년 6월 '효순이 미선이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이다. 이적성문화 속에서 공개된 중요정보들은 이적성 각종 네트워크들을 통해 빠르게 적에게 전달되어지고, 적의 지령에 의해 국가적 재난극복을 어렵게 하고, 각종 군사작전들을 실패케 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적의 지령에 의해 국가적 재난극복을 어렵게 하기위한 징후를 성급하게 드러낸 구체

時 論



박 실

- 본회 이사
- 전 한국일보 정치부차장
- 전 한국기자협회장

천안함 침몰사건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우리사회 정치 언론분야의 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론의 선정적 폭로위주의 보도, 정치권의 당리당락적인 무책임한 논란, 그리고 허둥대고 있는 군당국의 모습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허점이 일시에 노출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진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마침내 반응을 보였다. 천안함 함미가 인양된 17일 이 전함 침몰에 관한 북한 관련설은 "남조선 역적패당들의 날조"라고 상투적인 함구를 털어놓았다. 천안함 침몰에 관한 우리정부의 신중한 접근과는 대조적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면피성 예방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파장이 우리

경제와 안보, 장기적인 남북관계,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에서 치러질 각종 국제행사과 관련된 국제적 위상등에 미칠 영향이 매우 걱정이 된다. 우리정부가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신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염려되는 대목은 우리 언론들의 보도태도이다. 심지어 공영방송들까지

가보안법 또는 각종 보안규정이나 절차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인가.

천안함과 같은 군함들의 구조, 장비, 승무원편제나 통신, 작전지휘체계 그리고 배치상황등이 전부 노출되고 초동단계에서 허둥댄 해군의 대응으로 유추할 때, 국가긴급사태에 대한 신속치밀한 대응력이 전무한 것처럼 비쳐졌다. 군

스포츠 중계하듯 분별없는 보도경쟁 관련법규·절차 엄격하게 적용해야

지 분별없이 보도경쟁에 뛰어들어 군사기밀의 미묘한 부분까지 아무런 여과없이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고 첫 대응에 실패하면서 신뢰를 잃은 군은 통제력을 잃고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 해군은 속옷까지 다 벗겨진채 적나라하게 그 약점이 세계에 공개되고 있다.

이 나라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

함이나 군병영에서의 무절제한 핸드폰 사용 군기강문제등등 혹평하여 대한민국 군대는 마치 무능부패했던 왕년의 장카이썸(蔣介石) 군대같은 처참한 모습을 연상시켜 국민을 실망시켰다.

해묵은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쟁을 재음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과거 군사정부시절에 비밀주의, 군사기밀보호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알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군의 부정과 부패, 무능이 비호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진실을 가리고 허위보도나 선전을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까지 내세워진적이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미국에서도 보호해야할 국가기밀과 국민의 알권리는 상충되지 않도록 조절통제 되어야 한다는게 상식이 되어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나 월남전쟁 때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국회의 논의과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을 당혹케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철저한 비밀주의 군사독재체제인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군에 대한 책임추궁은 다음의 문제이다. 지난 10여년간 나라를 휩쓴 좌파 포퓰리즘과 일부 좌파언론의 영향으로 우리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되고 안보체제가 무방비상태임이 확인된게 아닌가. 관련법규의 준수, 군의 기강확립과 국방력의 재정비, 그리고 대북경각심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군사기밀과 알 권리

左派언론은 北의 ‘대변자’ 인가

1200톤의 초계정이 두동강 나고 수병 46명의 생명이 희생된 천안함(天安艦) 폭침(爆沈)은 대한민국의 지축을 뒤흔드는 역사적 대 참사다. 심대한 안보위기를 말한다. 미국은 9·11 알카에다 테러에서 즉각 부시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민적 결속을 보였으나 우리는 원인규명 그 자체를 놓고도 심각한 분열과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 친북좌파세력 특히 좌파 언론들의 변함없는 종북주의(從北主義)가 근원적 문제다. 이들은 처음부터 북한의 면죄부에 역점을 뒀고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폭침요인에 대한 정밀 분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북의 면탈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보 정치 사회 등 총체적인 접근도 하고 있다.

서울의 정치구도는 이미 이명박 보수정권 대 서울의 진보좌파와 그들의 거대한 우호세력인 평양 김정일정권과의 1대2의 대결구도다. 좌파언론이 북한 면죄부를 내놓고 밀고나가는 것도, 사태 초반 군 미숙을 구실로 군(軍)을 무참히 짓밟아 정부및 군에대한 국민신뢰에 치명적 구멍을 낸 것도, 해군의 기밀을 지나치게 유출시켜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것도 그들의 목소리가 그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앤드루 새먼 더 타임스지 서울특파원은 “한국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자는 한국군이 이번 비극을 명예롭게, 프로페셔널답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유력 용의자

사안의 핵심은 ‘누구의 짓이냐’다. 현역언론인중 거의 유일하게 해군장교(경비정 항해장)경력에 있는 한국일보 강병태 논설실장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범죄학의 원리에 따르더라도 북한은 천안함을 폭파 할 만한 유인이 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참사 20일만인 지난 4월16일 민·군 합동조사단(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전문가포함)이 첫 공식발표를 내놓았다. “선체절단면과 선체내외부에 대한 육안검사결과, 내부폭발보다는 외부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기뢰 아니면 어뢰에 의해 폭파됐다는 것이다. 북의 용의가 한층 짙어진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단을 하지 말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았으나 “철저한 규명”과 “단호한 조치”를 공언했고 김대영국방도 “한국안보의 중대한 사태”로 본다 고 했다. 중요한 것은 확증(Smoking Gun)의 확보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푸는 열쇠인데 문제는 확증은 찾기가 어렵고 이렇게되면 사건은 영구미제(永久未濟)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은 확증이 있다해도 아웅산 테러(전두환 전 대통령 암살미수), 김현희 KAL기폭파 등에서와 같이 결코 인정하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것이 있어야 주도적으로 북의 목을 끝면서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북이 양식 없는 ‘테러정권’이니 우리로서는 확증이 없더라도 정황증거만을 갖고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제 보수와 좌파신문들은 1차

신문시평



이 재 승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 세종연구소 이사

결론 나기전 “군사대응 안된다” 주장 보수지는 자위권 행사 등 강경 주문

軍事기밀 여과없이 유출

청천벽력같은 천안함의 폭침에 군(軍)의 초동처리가 미숙,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샀다. 특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최고수뇌부에 대한 사건 보고의 지연등은 군의 지휘명령체계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뿐만 아니라 발생시각의 잦은 수정등 대언론 홍보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은 정보공개통제시스템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홍보는 군사기밀을 지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줘야하는 것이 요체다. 미국정부는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등 주요부서에 정보공개통제시스템이 잘 발달돼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뭇을 얼마나 어떻게 홍보할지 공보관계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에 협의가 잘돼 착오가 적고 같은 사안에 대해 두소리가 나지 않는다. 부처간의 협의도 비교적 원만하다.

우리군의 홍보도 민군합동조사본부 가 작동한 뒤에는 그런대로 가닥이 잡혔지만 사태수습초기에 유가족이나 언론의 빗발치는 요구를 허둥지둥 뒤쫓다보니 기밀은 그것대로 유출되고 의혹은 그것대로 부풀려졌던 것 같다.

한겨레는 사건 5일만인 지난 3월31일자 하루만 해도 “‘무능한 대응’에 국민 분노”, “군 닷새째 오락가락” “누굴 믿고 군대를 보내란 말인가” “국민 불신 키우는 군과 정부의 정보통제·왜곡” 등 1면 톱에서 사실에 이르기까지 군과 정부에 대한 선정적인 비난으로 도배를 했다.

그래도 조선, 문화, 한국 등 보수와 중도지들이 구원투수가 됐다. 이들은 “우리 발등을 찍을 교신공개 요구” “군사기밀의 무분별한 노출을 우려한다”등 군기밀유출에 경각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한겨레는 여전히 “‘교신일

조사결과 발표이후 대립이 첨예화했다.

北 면죄부 합창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등 좌파신문들은 애초부터 경쟁적으로 북한의 혐의차단에 힘을 쏟았다. 정부나 보수진영에서 조금만 연계성을 비치기만 해도 “무책임한 ‘북한 공격설’ 유포, 저의가 무언인가”(한겨레 3일자)라고 신경질적

인 반응을 나타냈다. 초반에는 폭침의 원인으로 보수지들과 같이 암초충돌설, 내부폭파설, 선박노후설등을 합창하더니 외부폭파설로 굳어진 이후로는 보수신문과는 차별화, “성급한 결론보다는 과학적 증거를 찾을 때다”(한겨레 17일)며 “확증(Smoking Gun)”을 강조하고 있다. 확증이 없다는 것을 자신하고 확증을 고집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확증이 드러나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대처 논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월12일자 좌파신문들의 보도가 이를 시사한다. 한겨레는 자사의 여론조사결과, “천안함 군 발표 못 믿겠다” 59.9% 였다고 밝혔고 경향신문은 “북한도 중국및 러시아제 어뢰를 사용,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천안함 피격결론이 나도 영구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내일신문은 “북 개입 확인돼도 군사대응 안돼”(국제사회 공조로 풀어야 40.4%) 라고 했다. 확증이 없으면 영구미제이고 드러나도 자위권행사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구미에 맞지 않겠는가. 친북좌파신문들은 김정일 정권의 충실한 대변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신문 전쟁각오 의지 촉구

이들에 맞선 조(朝) 중(中) 동(東)등 보수신문들의 대응은 비교적 강경하다. 조선일보는 “두 동강 난 천안함 앞에서 다짐하는 우리의 決意”(16일자), “북한 관련설은 날조”라는 북의 속임수를 꿰뚫어보라(19일자), “군사적 대응도 열어놓아야 외교에 힘이 실린다”(20일자) 등 북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은 때론 전쟁도 각오하는 결연한 의지”라는 역사적 진리에 논거한다. 결연하고 단호하다. 보수신문의 초석답다. 뿐만 아니라 중국 소식통을 인용, “천안함 사건은 정찰총국 김영철작품”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지난 10일 군소식통을 인용, “천안함 침몰은 北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이라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초긴장 변수다. 중앙일보도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빈틈 없게 대비해야”(12일자)한다고 군의 분발과 분투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다시 建軍한다는 각오로 強軍 만들라”(20일자)고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그러나 자위권행사문제에서는 할 발 물러나 있다.

남북관계가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안팎정세를 감안하여 미 일 중 등 주변대국과의 공조체제아래 최선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으로 친북좌파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실히 찾아야겠다.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국민의 예리한 통찰력과 역동적인 행동력을 키우는 것이 급하다. [4]

지 공개’가 의혹 풀 열쇠”라고 했다.

사건 발행후 10여일사이에 국방부의 일일브리핑, 국회질의, 생존자 기자회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천안함의 기동향로, 지휘보고체계, 열상감시장비(TOD) 등 각종 특수장비의 운용현황, 각종특수함정의 정박위치와 출동시간, 대북정보수집방법 등 1.2급이상의 군사기밀이 여과없이 유출됐다. 심지어 통신교신문의 일부까지 공개됐다. 이에따른 관련시스템의 수정,보안에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철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조선일보기고에서 “...교신 기록을 공개하면 적군이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해독을 못하였던 다량의 아군 암호통신문의 해독에 거의 완전한 도움을 주게된다”며 “교신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노출돼선 안된다”고 했다.

또하나 문제는 국회의원등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군사기밀 공표다. 한나라당 김학송국회국방위원장은 지난 5일 국방부의 비공개보고를 들은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천안함 침몰을 전후한 지난달 23~27일사이 북한잠수함 2척을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했으며 이중 한 척의 사고당일(26일)행적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북한잠수함 감시능력과 그 허점을 북측에 알려 준것이다. 군관계자는 우리와 대북정보수집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에도 피해, 한·미협조에도 금이 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해당국회의원들에게 엄격한 기밀준수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길 경우 가법치 않은 벌칙이 따른다.

우리도 이제는 선진형 정보공개시스템을 정착, 군기밀유지와 알권리의 합리적 공존을 확립해야 겠다.

추측 보도 - 誤報 책임 누가 지나

“知者不言이요, 言者不知라.” 老子가 도덕경에서 한 말이다.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채 말만 한다.” 노자가 살고 있던 때에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요즘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사방에서 떠돌고 있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으면 자신만이 꼭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세상인 것이다.

특히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는 주변에서 말이 너무 많은 바람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자신이 직접 겪은 듯이 얘기를 하고, 때로는 있지도 않는 것을 마치 사실인양 얘기를 하니 듣는 이들만 혼란스러워 지는 것이다.

정부와 군당국이 초기에 우왕좌왕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에 대한 군 당국자들의 책임문제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고 나면 당연히 밝혀지겠지만 그동안 언론, 특히 TV방송이 저지른 오보나 추측보도는 누가 책임을 묻고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두고 불일이다.

3월26일 밤 9시22분 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근해에서 침몰하면서 가장 먼저 추측성보도(오보 여부는 앞으로 가려지겠지만)를 내보내 시청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SBS였다. SBS는 26일 밤 11시 40분경 ‘스타 부부쇼 자기야’란 프로그램을 방송하던중 “2함대 소속 초계함 1척, 북한 공격으로 침몰”이란 자막을 내 보냈다. 이 자막을 본 시청자들이 얼마나 불안해 했을까.

이어 비슷한 추측은 MBC의 앵커우먼 김주하의 트위터를 통해 팔로어들에게 급속하게 전파됐다. ‘북한 반잠수정이 침몰 시킨 듯’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그녀는 두시간쯤 지나 “군 관계자가 북한의 반잠수정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던 미확인 물체는 새떼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계속 뉴스 주시하겠습니다”라고



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도 국방부에 의해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OBS경인방송도 오보 행렬에 뒤늦게 가세했다. OBS는 지난 4월1일 뉴스755에서 “천안함 실종자 46명중 4명이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군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

나 국회 그리고 언론에서 유출된 군사기밀은 어찌하나. 심각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으니까 일단 두고 보자. 그러나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자세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안으로 몰아 넣은 것은 아닌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할 공영방송이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아닌가. 사건이 일어난지 20일째, 우리 국민들은 눈물속에서 천안함 함미 부분이 인양되는 장면을 지켜 보았다. 바로 그날 MBC노조원들은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며, 자신들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주

장하면서 거리를 누볐다고 한다. 유족들은 통곡하든 말든, 온 국민이 슬퍼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이해관계를 위해 우리식대로 하겠다는 자세에서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공영방송인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같은 시간 KBS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특별 생방송을 연속 편성해 방송했다.

끝으로 필자는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부근에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적혀있는 문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6·25에 참전했다가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전사한 3만 5천여명의 미군을 추모하기 위한 이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시간 우리국민 모두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할 글귀가 아닌가 한다. [4]

TV앵커 등 확인안된 사실 퍼뜨려 공영방송이 국론분열 부채질 인상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군이 잘못 발표 한듯 아리송하게 정정해 내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트위터는 팔로어가 5만명이나 되는 데다 실시간으로 과급되는 트위터의 특성으로 보아 처음에 잘못된 북한이 침몰 시킨 것 같다는 소식은 급속히 퍼져 나간 뒤였다.

또 KBS는 3월28일 “천안함 침몰직후 백령도 북쪽 NLL인근 상공까지 내려온 북한 공군기 1개 편대가 방공 레이더에 잡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침몰 1시간후 속초함이 레이더에 비행물체가 나타나 경고사격을 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새떼였다”는 합참의 발

해 실종자 가족들을 다시 한번 슬픔으로 몰아 넣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6·25전쟁 60주년인 올해까지도 여전히 전쟁상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북한의 소행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그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방태세가 사방에서 구멍이 뽕뽕 뚫려 있다는 사실이다. 해상 안보망은 이대로 좋은가. 장관과 합참의장이 녹장보고를 받는 동안 서울은 이미 불바다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공군기출동이 그렇게 늦었다는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그동안 국방부

여론은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여론의 토양이 오염됐거나 선전이나 선동으로 조작된 여론이 횡행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둥이 썩어가는 목조 건물에 비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다닐 때 내 키는 160cm이었다. 달포 전 동창회가 있었고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 모임에서 수술 받은 내 건강과 근황이 화제가 됐고 뜬금없이 내 키 얘기도 나왔단다. 대부분의 동창들은 내 키가 165cm는 된다고 말했는데 한 친구가 아마 160cm쯤 될 거라고 말했다가 눈썰미 없다고 지청구를 먹었다고 한다.

얼마 전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래서 민망했다며 줄자를 내미는 것이었다. 키를 재보자는 것이었다. 159cm였다. 나이 들어 1cm가 줄어 든 모양이다.

그러나 동창회보에 실린 나에 대한 소식에서 내 키는 165cm로 소개되고 있었다.”

꾸며본 얘기다. 이런 경우 실제의 키는 159cm이지만 여론에 따르면 내 키는 165cm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억지 주장과 사실과 다른 여론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이다. 여론 지상주의와 여론 만능주의가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다.

더구나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

여론이 만능일 수는 없다

태평로에서



까지도 여론으로 포장되고 과학적이거나 전문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도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된다.

모든 문제를 자기 당파에 유리한 사회적 담론으로 포장해서 여론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교묘하게 요리하는 사람들이 활개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일 것이다. 쇠고기를 먹

고 광우병에 걸리느냐는 문제는 전적으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문제인데 확인되지 않은 이 문제를 이용해 촛불시위를 촉발하고 나라를 뒤흔드는 사태로 확산시킨 것은 정치적 폭탄으로 개조하고 부풀린 선동꾼들의 작품이었다. 애당초 여론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중 인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폭발물로 만든 범죄 행위였던 것이다.

전국 92개 공구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와 매스컴의 보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실효성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담론

으로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겨주며 국가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도 확보 됐고 각 공구에서는 24시간 2교대 근무조가 밤 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펼쳐진다. 본부의 감독용 폐쇄회로에는 모든 현장의 카메라가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미 거대한 공사가 전 구간에서 상당부분이 진척된 상황인

데 실시 여부를 묻는 찬반 여론조사는 무엇을 위한 조사이며 무엇을 얻기 위한 여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공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49.9%로 36.7%인 찬성보다 13.2%p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상황을 되돌리는 일이 가능할 것 인가. 물고 늘어지기와 뒷북치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능한 문제를 화두로 삼아야 할 것이다. 4대강 문제는 현 단계에서 찬

반의 문제가 아니며 루비콘 강을 건넌 작전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리고 공사가 바르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한 엄정한 공과를 따질 일이 남았다고 할 것이다.

지난 4월8일 여론 조사 기관인 GH코리아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서 기뢰나 어뢰 공격 등 외부충격으로 인한 침몰이 50.1%란 긴급여론조사 결과를 내놔다. 침몰 원인을 여론조사로 다룬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한 일이 아닌가. 모든 문제를 여론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용하려는 세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침몰 여부를 가리는 고도의 과학적인 과제가, 군함이 침몰한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어떻게 무책임 할 수도 있는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론은 여론자체로 드러나는 순수한 대중의 생각이야 값진 것이지 기획되거나 조작된 여론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의 자질과 상식 그리고 소양이 결핍된 채 선동당하고 이용당하는 여론은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여론은 민심이 천심이란 옛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生死를 넘나든 그때 그 순간

6·25 60주 참전-종군회우 좌담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이 이 땅을 초토화한지도 어느새 60년이 흘렀다. 올해 2010년은 이 민족적 통사(痛史)가 한 바퀴 큰 궤적을 그리고 돌아온 뜻 깊은 해다. 60년 전, 조국의 부름을 받고 구국전선에 나가 싸우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참전용사들과 목숨을 걸고 포화의 현장을 누비며 취재 보도한 종군기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자신들이 직접 겪은 6·25를 증언했다.

이들은 또 최근 천안 함이 침몰해 수 많은 장병이 비명에 간 사건에 대해 분노했고, 나라의 불안한 안보현실을 걱정했다. 4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실에서 16명의(참전, 종군) 회우들이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리=지용우 본보 논설위원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참전·종군회우 좌담회.



1953년 중동부 전선에서 수훈병사들과 기자회견 장면. 탁자에 앉은 좌로부터 이혜복, 한사람 건너 박영식, 고 방낙영 기자, 서있는 사람은 홍윤식 공보장교.

孔大植 = 대구로 피난 가서 51년 7월 해군에 지원했다. 그런데 뜻밖에 해병대로 입대하게 되었다. 간부후보생 4기, 해병 동해부대로 원산 앞바다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신병들이 배치되었는데 북한군의 기습을 받아 전원 전사하는 비통한 현장을 목격해야 했다. 이번 천안호 침몰사건을 보니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거액의 포상금을 받는 등 최고의 예우를 해주고 있지만 당시 전사한 우리 해병들은 가족도 보지 못한 채 화장해 버린 것이 고작이다.

李敬南 = 나는 황해도가 고향이다. 평양사범대학 문과 재학 중에 6·25를 만났다. 이미 그 이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 챘지만 설마 동족상잔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전쟁개시 3일 만에 서울이 해방되었다는 평양방송을 듣는 순간 나는 절망했다. 왜냐하면 나는 8·15 해방 후 불과 5개월 만에 ‘반탁반공사건’에 연루되어 해주 형무소를 거쳐 평양 형무소 특별 구치감에 1년간 수감된 전력이 있는 반공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마련한 소집대기소를 무단 이탈해서 고향마을에 숨었지만 결국 대학당국에 자수했다. 그 후 제 2 군관학교 단기반에 들어가 인민군 소위로 임관했다. 인민군 20여단 소대장에 임명되면서 마침내 최전방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맹세코 한국군을 향해 총을 쏘아대는 일은 없었다. 탈출할 기회만 엿보다가 소대원 42명을 이끌고 한국군 제 6사단 7연대에 집단 귀순하는 거사에 성공했다. 포로수용소로 보내려는 낚시에 “나는 투항한 포로가 아니니 수용소에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林富澤 연대장의 결단으로 정보문관으로 신분이 바뀌는 혜택을 입었다. 바로 북진대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북진선봉대인 16사단 7연대가 압록강 초산(楚山)에 진입했을 때 나는 황해도 내 고항평으로 귀향해서 청년단 단장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보람은 잠시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나의 운명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1951년 2월에 새로 조직된 구월산 유격대에 가담했다. 그로부터 휴전이 성립된 1953년 7월까지 작전참모와 참모장의 임무로 후회 없는 젊음을 불살랐다.

결국 우리 유격대원들은 진남포 어귀에 있는 초도(草島)에서 해군 LST에 태워져 장산곶을 지나 38선을 넘어 남한 땅으로 왔다. 30개월에 걸친 나의 반공유격대 생활은 내 생애 잊을 수 없는 귀중한 체험이었다. 휴전후에 나는 한국군 육군중위로 현지 임관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3년 뒤에 예편되었다. 5백여명의 구월산 유격대원 중 200여명은 지금도 생존해서 친목모임을 만들어 만난다. 나는 이 모임의 전우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金鍊 = 6·25가 터지자 나는 춘천지역전투에 참전했으며, 인민군이 서울에 쳐들어 온 6월27일에도 38선에서 불과 4km 남쪽인 춘천을 사수하는 임무를 맡아 싸우고 있었다. 7월 초순에는 음성지역에서 인민군의 주력을 궤멸시켜 연대장 이하 전 장병이 1개급씩 특진하는 특혜를 입었다. 그리고 6·25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영천전투에도 참전해 북진이 시작되기 전(9월21일)까지 전투를 계속했다. 드디어 북진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단은 50년 늦가을(10월26일)에 초산(楚山)에 집결해서 인민군과 중공군을 압록강 이북으로 몰아내는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1952년4월 부상으로 인해 명예제대 했다.

李龜烈 = 나는 6·25가 발발하자 포병으로 참전했다. 포병관측장교로 보병보다는 한 발 뒤에서 싸웠다.

李淳紀 = 6·25때 나의 병과는 보병이지만 경기관포 소대의 분대장으로 싸웠다. 7사단 5연대로 배속되었다. 단 1주일간 M1소총의 분해결합과 실탄장착 방법만 배운 상태에서 전선에 투입되었다. 강원도 춘천 내평(內坪)리 외곽의 눈덮인 00고지. 칼바람에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한 밤중에 불꽃 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지호지간의 고지 아래는 적진지다. 마침내 인민군들의 돌격이 시작되었다. 나팔소리와 귀를 찢는 기관포 소리, 그리고 쿵 쿵뚱하는 소총소리가 혼합되어서 들려온다.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철혈의 야밤이지만 우리도 돌격하는 적들의 방향으로 죽어라 하고 대응사격을 했다.

우리는 다시 북진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고 계속 전진해 갔다. 퇴각했던 자리를 다시 밟으며 북진, 또 북진. 두껍게 결빙된 소양강의 빙판으로 퇴각하는 중

공군 대열이 보인다. 순간, 후방의 포진지에서 불을 뿜는다. 소양강의 빙판을 모조리 폭파하여 중공군의 퇴로를 차단하려는 전략이다. 우리사단은 소양호 건너 사명(四明)산 정상 부근에 진지를 구축했다. 그 때 호주공군의 전투기 2대가 중공군이 있던 고지를 폭격했다. 이에 적군도 우리가 포진한 진지에 일제히 포격을 가해왔다. 우리 진지가 날아간 것은 한 순간의 일이다.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마도 폭풍에 내 몸뚱이가 공중에 솟았다가 떨어진 모양이다) 나는 충북 제천의 한 야전의무대의 천막에서 응급수술을 받고야 정신이 되돌아 왔다. 정신이 되돌아 온 날이 1951년 4월15일이라고 위생병들이 알려주었다. 좌측 머리에 심한 타박상, 우측 늑골 2대 골절, 우측 다리 골절상, 무릎도 탈골, 왼쪽 눈 각막파열, 우측 뺨을 관통한 파편이 잇몸에 박히는 등 결과는 중상이다.

나는 대구 신병 훈련소에서 받은 인식표(군번 0157616)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야전의무대의 군의관님, 밀양 7육군병원 원장과 간호장교님 등 나의 생명의 은인들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다.

宋斗彬 = 6·25때 내가 군에 입대할 것은 9·28수복 직후였다. 서울서 고교 2학년 재학중 만 17세 나이로 군에 입대했다.

대구의 훈련소에서 단 10여일 간의 짧은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최전방부대(육군 보병 7사단 3연대 3대대

10중대)에 배치되었다. 포성이 들려오는 춘천 북방의 전선에 투입되었다. 보병들의 무기는 M1소총과 어깨에 멘 두 줄 실탄이 전부다. 전투는 벌어 졌는데 이게 웬일인가.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뇌관을 때리는 공이 치기가 부러져 있었던 것이다. 병기계에서 내준 총을 분해결합도 안 해보고 전쟁터로 나간 데서 빚어진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다. 그렇다고 전투 중에 총을 바꾸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때마침 총상을 입은 동료사병(전우)의 총을 물려받아 싸울 수 있었으니 천만다행이다.

해가 바뀌어서 1951년의 새해가 밝았다. 저녁을 먹고 있는 데 전 부대 출동 명령이 하달됐다. 중공군과 중공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 인민군이 38선 전역에서 대공세를 감행해 왔다는 것이다. 후퇴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에 인민군이 입성함으로써 이른바 1·4후퇴가 시작된 것이다. 한 밤중에 춘천을 떠난 우리 부대는 그로부터 무려 14일간이나 멈춤 없는 주야간 행군으로 후퇴를 거듭했다. 제천~단양의 중간지점에서 우리의 퇴로를 봉쇄하기 위해서 영월 주천(酒川)일대에 적군 1개 중대규모가 산악지대를 타고 포진하고 있으니 이를 소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건 잘못 된 정보였다. 1개 중대라던 적군은 그 몇 배인 1개 군단병력으로

9면으로 이어집니다.

6·25는 아직도 살아있다”

참전 및 종군 회우 명단

구 분	성 명	전 직
종군	계성일	대한일보기자
	구본건	합동통신 기자
	김진섭	동화통신편집국장
	문제안	경향신문기자
	박영식	시사통신 사회부장
	이지웅	내외경제 편집국장
	이필면	합동통신 기자
	이혜복	동아일보 사회부장·KBS해설주간
	임학수	동아일보편집부국장
	정준모	신아일보주일특파원
참전	지갑중	연합신문정치부차장
	최원각	서울신문 주일특파원
	한영섭	KBS보도실장
	공대식	MBC해설위원
	김관태	한국일보 사회부기자
	김용수	코리아헤럴드편집국장
	김 집	KBS전문위원
	박기병	부산일보 정치부장·한국기자협회장
	박용운	동아일보 출판국장 대우
	송두빈	내외경제 논설위원
	신현구	일간스포츠 편집부장
	안광식	코리아 리퍼브릭 외신부장
	안현태	KBS전국뉴스부장
	오판룡	영남일보편집국장
	윤양중	동아일보 정치부장
	이경남	현대경제 편집국장
	이구열	경향신문 문화부장
	이세환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이순기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임인흡	대한일보 사회부장
	정연복	중앙일보 사회부장
	지연홍	자유신문 기자
	지용우	경향신문 논설실장
	최서영	코리아헤럴드 사장
	홍성혁	동양일보 편집부국장
	황대연	매일신문 편집위원

8면에서 이어집니다.

확인된 것이다. 우리 3대대 11중대는 이 지점에서 대 격전을 벌이다가 적에게 포위되어 1백여 명 중 80여명이 전사하고 20여명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막대한 병력손실을 입었다.

鄭然福 = “내 고향은 강원도 태백산 골입니다. 6·25때 피난길에 나섰다가 학도병으로 참전해서 싸웠는 데 군에서 학도병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군번도 없이 천마산 전투에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쳐 1950년 9월에 귀환 명령이 내려 돌아왔습니다.” 내가 적은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池龍雨 = 나의 6·25 참전은 극적인 동기로 이루어졌음을 먼저 밝혀둔다.

38선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이 빚어진 그날 아침 11시쯤 대동청년단에서 왔다는 청년이 형님(지용순)을 찾는다. 나보다 여덟 살 위인 형님은 외출하고 없었다.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그 청년은 일단 돌아갔다. 낮 12시 경에 다시 와서 찾는다.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그럼 동생이라도 대신 왔다 가라”는 것이다. 나는 학생이고 대동청년단원도 아닌데 왜 가느냐고 반문하니 잠깐 주의사항만 듣고 오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따라 나섰다가 가족과의 이별의 날이 되어버렸다. 한국전쟁사상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전선에 ‘소모품’으로 투입될 줄이야 꿈에

도 몰랐다. 훈련이라고는 무기도 없이 하는 제식훈련이 고작이었다. 6월27일에는 뜬금없이 특공대를 조직한다며 법석이다. 북한군의 탱크가 밀어닥치면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 파괴하는 ‘육탄용사’라고 했다.

나는 의성에서 첫 전투 경험을 했지만 다음에 내가 죽다 살아난 낙동강전투에 비하면 그것은 게임도 아니었다. 우리 무명용사들은 마침내 6·25 최후, 최대 방어선인 낙동강전투에 투입됐다. 정확히 말하면 안강(安康)전투다. 안강전투는 다부동(多富洞) 전투, 포항전투와 함께 6·25 3대 격전지로 자타가 공인한다. 화력이란 화력이 총동원된 전투였고, 적과 아군이 뒤섞여 총검으로 백병전을 치른 원시적 전쟁이자 심지어는 미 공군이 웅단폭격까지 불사하는 그야 말로 죽음의 사지(死地) 바로 그것이었다. 의성전투까지는 내가 군번도 소속도 분명찮은 무명의 전사였다. 하지만 낙동강전선으로 이동하면서 나는 9200831이라는 군번도 받고 싸우는 정규 군인이 비로소 된 것이다. 수도사단 1연대 1대대 1중대가 내 소속이다.

낙동강 전투, 안강전투에서 살아남은게 정말 기적이다. 보름동안의 전투에 전사자와 중상자가 1만여 명도 넘게 쌓여만 가는 최악의 전쟁터였다. 참호구덩이에서 싸우다 전사하면 고지 뒤에서 대기 중이던 위생병이 넘어와서 시신을 빼내어 간다. 그러면 보충 병력이 그 자리를 다시 메우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장면이 마치 붕어빵기계의 원리라도 같았다..

그해 8월 12일 낮에 벌어진 전투에서 나는 날아온 총탄을 맞고 부상했다.

그후 나는 복진대열에는 끼지 못하고 부산의 389부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제1차)명예제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의 제대증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위의 사람은 (중략) 군무 수행 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해 현역으로부터 제대함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됨. 이는 국민에 최고의 명예임을 가찬하여 자에 증서를 수여함” 육군대장 백선엽.

具本健 = 6·25 당시 종군기자는 1·4 후퇴 이전까지는 구본건 김진섭 장명덕 최기덕의 취재활동과 1·4후퇴 이후 1953년 7·27휴전까지의 구본건 장명덕 이월준 박영준의 종군활동, 그리고 휴전이후의 장명덕 박영준 박남규 이준영의 전후 뒤처리 종군취재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나는 6·25 당시 서부전선 1사단에 소속되어서 문산 탈환 때부터 종군했다. 김천 남천 신막 사리원 광주를 거쳐

10월 19일 평양입성 직후 평양에 들어갔다. 열흘 뒤인 10월 29일 이승만 대통령 평양 시찰등을 취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 때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다. 평양입성의 흥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환호하는 평양시민 환영대회에 참석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51년 1월15일경부터 수원에 본부를 둔 1사단 소속 종군기자였던 나는 다시 복진하는 국군의 승전보를 줄곧 진중에서 취재해 부산 본사로 송고하여 각 신문을 장식했다. 특히 내가 쓴 서울 재탈환의 종군기가 54년 2학기용 중학 2학년 교과서에 전문이 그대로 실린 사실을 잊을 수 없다.

51년 7월부터 개성시 근교에 있는 ‘래봉장’에서 열린 휴전 예비교섭 개성회담을 노석찬과 함께 취재 보도한 것도 기억에 새롭다. 예비회담 첫날은 유엔군 소속의 외국기자들만 취재 하도록 차별화해서 한국기자들이 항의하자 나와 노석찬 문제안 등 5명만 뽑아서 개성회담장 밖에다 텐트를 치고 숙식토록 하고 외국기자들에게는 유엔군 대변인인 리콜스 준장이, 한국기자들에게는 이수영 중령이 회담내용을 브리핑하는 형식을 취했다. 우리는 “한국전의 휴전회담을 한국기자가 취재하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는가”고 강력 항의했다. 불평기사가 신문에 크게 보도되자 도쿄의 릿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시정할 것을 지시해서 취재가 허용된 해프닝도 있었다.

朴永植 = 종군기자로서 잊지 못할 추억은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던 때의 취재활동이다. 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쌍방 간에 정식 조인됨으로써 3년 1개월 2일 19시간 만에 드디어 총소리가 멎었다. 다만 아직도 통일이 요원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李蕙馥 = 나는 경향신문과 자유신문의 국방부 출입기자로 종군했다.

국군 1사단과 함께 평양탈환 작전에 종군 했는데 지금도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모습이 눈에 선하다. 종군기자에 관한한 우리만 고생한 것이 아니다. 유엔소속의 종군기자는 6·25 때 16명이나 한국전선을 취재하다가 숨져갔다.

한국 기지는 6·25 전쟁 때 17명이나 종군취재 했지만 한규호 기자 한 사람만이 숨졌다. 6·25 종군기자로 취재일선에서 산화한 한규호 기자의 사진을 프레스센터 명예의 전당에 현창하기를 바란다. 대한언론인회가 앞장 서서 그 일을 추진해 주었으면 싶다. 한국 종군기자의 활동은 1948년 여순 반란사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8년엔 종군기자 동우회가 창립되었고, 종군기자 26명이 화랑무공훈장을 받기도 했다. 나의 경우는 1950년 11월말 경에 제2국민병으로 등록신고를 했다가 현역으로 소집되어 육군 보병으로 입대해서 7사단 3연대 3대대 10중대에서 근무했다.

崔元珪 = 6·25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종군했다. 6·25 최대 격전지인 다부동전투 최후의 교두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수 없이 넘겼다.

韓永燮 = KBS기자로 1954년부터는

국방부 출입기자로 종사했다. 그 이전에 1950년 흥남철수 작전 때는 강추위 속에 배편으로 철수하는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李蕙馥 = 6·25는 분명 적화통일을 노린 남침전쟁이다. 스탈린 치하의 소련과 毛澤東의 중공이 묵인아래 김일성이 저지른 남침전쟁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오늘날 6·25를 체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6·25의 역사적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우리는 북한체제의 본질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드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金龍洙 =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저들은 악수를 두었다. 저들의 악랄한 도발은 우리의 해이된 안보의식을 재무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宋斗彬 =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공격이 분명하므로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 (국가안보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2012년 4월로 약정된 작전권의 이양(환수)도 북핵 해결뒤로 미루도록 한미간에 절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절감하는 시점이다.

池龍雨 = 북한에 얼마나 더 당해야 하는가. 우리 해역에서 어뢰를 발사할 나라는 북한 말고는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방능력에서 배워야 한다. 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고, 삼면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제국의 수역 인구에 포위되어 있는 지정학적 불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40년이 넘게 이어온 전쟁에서 한 번도 진일이 없었다. 그 이유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과 전면전도 불사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해군도 운영에 엄청난 돈이 드는 이른바 ‘거함 거포주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잠수함 잠수정과 쾌속전함 같은 기동성 있고 작고 빠른 함정으로 재편해서 ‘이에어이’ 식으로 치고 빠지는 ‘히트 앤드 런’식 작전술로 나가야 할 것이다.

金 鎭 = 60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새삼 통감했다. 북한체제는 6·25 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도 안일한 평화분위기에 빠져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집단이다.

林學洙 = 정치인들의 안보의식도 문제다. 지난 10년간 친북좌파세력의 집권으로 만성화된 안보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李龜烈 = 나는 사태를 낙관적으로 본다. 우리 국민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자주 도발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韓永燮 =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된 것은 이들에 대해 좌파정권이 10년 동안 의도적으로 6·25의 참뜻을 왜곡해서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철저히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正論, 正義, 正道 ‘3正’ 지키며 봉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22〉

회유

“교회와 신자가 十誡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한언론인회 원로위원 金景來(82) 박사는 한국교회의 성장지상주의 등을 지적하며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묻자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한다. 벚꽃이 꽃비가 되어 흩날리던 지난 4월 21일 낮,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약칭: 협의회)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이 들어선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절로 숙연해진다. 김 원로위원은 25년 간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아 기독교언론인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고, 2년 전부터는 상임이사를 맡아 여전히 바쁘다.

—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한국교회의 어른이다. 2남 6녀 중 장남인 데 모태신앙인가요?

“그렇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외국인선교사 복음에 감동 받아 1900년에 통영 미수교회를 설립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입니다. 최근엔 후손들이 거제도 하청에 선교지원센터를 건립할 정도로 부흥했어요.”

— ‘양화진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뭔가요?

“구체적인 전말은 이미 언론에 다 소개됐어요. 한국교회의 반목과 시기가 단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十誡命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국제기드온협회 국제이사를 거쳐 지금은 한국국제기드온협회 大型教會위원장인 데 기드온협회가 하는 일은?

“1899년 창립된 국제기드온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실업인과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세계 191개국이 가입됐어요. 군대, 병원, 학교, 호텔, 교도소 등에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2개 국제이사국이죠. 2002년부터 해마다 세 차례 정도 미국서 열리는 기드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을 많이 소개했어요.”

구약성서의 기드온(Gideon)은 이즈르엘 평야에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한 인물. 세계적 성서기증 보급기관인 ‘기드온협회’도 이 이름에서 따왔다. 김경래 원로위원의 삶도 ‘기드온’을 닮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려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양했듯이, 그는 정관계 진출 제의를 거절하고 언론 외길을 걸었다. 봉사와 참여로 사회운동을 선도했고, 사회정의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파운동에 앞장섰다.

正論: 공직 사양...외길 언론인

— 신문기자가 된 동기는?

“1950년 12월 육군보병학교에 입교하여 훈련 중에 병이 나 제5육군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 때 뉴욕타임스 종군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언어(영어)소통이 가능했고, 7주간의 단기훈련만 받고 전쟁터에 투입되는 이른바 ‘소모품 소위’의 이야기를 듣고싶어 했어요. 얼마 뒤 병상으로 배달된 신문을 보고 신문기자의 사명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실감했습니다.”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앞에선 본회 원로위원 김경래 박사.

政官界 진출 유혹 뿌리치고 언론외길... 사회 ‘기독교 언론인’으로 左派에 맞서 국가정체성

종군기자의 예리한 관찰과 빈틈없는 기사에 매료된 그는 신문기자가 되어 9년 뒤 뉴욕타임스를 방문했다. 인터뷰를 했던 종군기자 스미스를 찾았으나 프놈펜 정글을 누비며 취재 중이라는 소식만 들었다.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간되던 중앙일보에 입사, 신문기자가 됐다. 기자초년병 시절 ‘영도 앞 바다에 북괴선박 출현’을 단독 보도하여 첫 특종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듬해 봄, 환도 직전 진해 별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理念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들은 것은 큰 수확이다”고 회고한다.

— 1960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뒤 1962년 5월 12일 ‘월남파병’ 특종기사로 곤욕을 치렀지요?

“한국군의 월남파병 특종은 신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 타전 됐습니다. 짜릿한 기쁨도 잠시, 출근 길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연행됐어요. 당시 박정희 의장은 파병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물었죠.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문기자는 취재원을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그래도 내게만은 밝혀야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집요하게 추궁하여 “주한 월남대사관에서 알았다”고 진원

지를 외부로 돌려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 1971년 9월 경향신문 편집국장 취임 후 청와대 대변인 제의를 사양한 이유는?

“그 해 11월 하순, 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로 나를 불러 “가까이 와서 일해 볼 생각 없소”라고 제의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1주일 여유를 줄 테니 생각해 보라”고 하더군요. 마음이 심하게 흔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의 조언도 많이 들었지요. 1주일 뒤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원래 배운 도둑질이 신문쟁이라서 듣고 보고 쓰는 일 말고는 다른 제주가 없다고 사양했어요.”

— 권력에 줄을 대지 못해 안달인 데 아쉬움은 없었나요?

“마음 한구석엔 솔직히 아쉬움도 있었지요. 그 뒤 김형욱 정보부장 때는 공보관 자리를, 정일권 국무총리 때도 공보비서관 자리를 권유받았지만 사양했어요. 재능 있는 기자들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경우는 요즘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현상이죠.”

젊음을 바쳐 正論一路의 외길을 걸어온 김 원로위원은 1980년 7월 ‘문화방

송·경향신문 부설 정경연구소장’을 끝으로 언론계를 떠나 기독교언론인으로 거듭났다.

正道: 누룩처럼 사회운동 선도

— 기독교언론인으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1980년 12월에 발족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20개 교단과 26개 기관단체의 협의체입니다. 1983년부터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아 기독교계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데 주력했지요. 그동안 양화진묘역 공원화, 선교사 묘지공원 조성, 용인 순교자기념관 건립 등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 사랑의 쌀은 주로 어디로 보내나요?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는 한해 보관비만 2700억 원이 듭니다. 소년소녀 가장 등 국내 가난한 이웃과, 북한동포,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16개 나라 가운데 열악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에 지원했지요. 특히 몽골에 쌀 지원을 계기로 한-몽골 우호관계는 물론 국교를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지요.”

— 1984년 기독교실업인과 전문 직업인

사와 참여의 삶

초대석

金景來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상임이사(현)
한국국제기드온협회 大型敎會위원장(현)

인터뷰 글·사진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국가재건최고회의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는 박정희 의장과 김경래 기자(뒤쪽 가운데).

들이 발족한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도 발기인 대표로 주도하셨지요?

“유산 때문에 법정 투쟁이나 살상을 낳게 되는 비극을 보면서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뜻을 모았어요. 이 운동은 세 가지 실천강령을 만들어 추진했어요.”

— 세 가지 실천강령이란?

“첫째, 죽음을 예비하여 해가 바뀔 때

기는?

“6·25 참전 세대로 6·25를 북침이라 주장하는 좌파선동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자유민주 시장경제체제를 왜곡하고, 김일성의 민족주체사상에 함몰되어 우상화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지요.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잡자는 것이 우파운동이라고 판단되어 기도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핵·반김운동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밝고 힘찬 나라운동,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 안보·경제 살리기 운동”이라고 강조한다.

— 반핵·반김 국민대회에 집행위원장과 국민대표를 맡은 배경은?

“집행위원은 전직 각료, 국회의원, 軍원로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 40여명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더군요. “김경래가 누구냐”고 묻는 이도 있었어요. 순수 언론인으로 외길을 걸었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여야 중립적인 인물이라 하여 만장일치로 집행위원장에 추대됐습니다.”

김 원로위원은 2005년 국가정체성 수호 자유진영 시민단체 연합체인 ‘비상국민회의’ 출범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2006년에는 국가비상대책회의고문과 한미연합사해체반대천만명 서명운동본부 지도위원 등 보수논객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바쁘게 살다보니 나이도 잊어.”

김 원로위원은 여든 둘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기가 넘친다. 달변에 기억력 또한 놀랍다. 뉴스의 흐름도 훤히 꿰뚫고 있다.

—건강비결이 궁금합니다.

“5시에 일어나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늘 바쁘게 살다보니 늙을 겨를이 없었는가 보죠.(웃음)” 술 담배는 1966년 장로 장립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끊게 됐고, 테니스를 가끔 치며 요즘은 실내 운동을 주로 한다는 것.

대통령 표창과 국민대상 ‘자랑스런 언론인상’을 수상했고,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金景來의 술 이야기

⑪



맥주 만세 (中)

어떻게 하면, 맥주를 보다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

석천(昔泉·吳宗植·경향신문 편집국장·주필)은 생전에 맥주에 대해 껍이나 까다로왔다.

맥주의 온도, 거품의 양, 따르는 방법, 마시는 쾌감... 지금 생각하면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다. 맥주는 참으로 근사한 음료임에 틀림이 없다. 맥주를 보다 맛있게 마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요소가 있다.

맥주의 온도, 거품의 형성, 따는 그릇이 그것이다.

우선 술의 온도는 6~8℃가 적절하다.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격언이 딱 들어 맞는 것이 맥주의 온도다.

제일 안좋은 것이 과냉(過冷)한 것.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서 너무 차가워진 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냉장고 보관은 5~6시간, 너무 차거나 미지근하면 품질(品質)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음은 거품. 거품은 ‘맥주의 보석’이라던가. 맥주에는 이런 말이 있다. “거품이 없어지기전에 마셔버려라. 그래야만 맥주 본래의 맛을 만끽할 수 있다.”

따라 놓은 맥주잔 위에는 2~3cm의 거품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을 입에 댔을때 그 거품이 아삭아삭함이 윗입술을 자극할 때 우리는 맥주의 첫 쾌감을 맛보는 것이다.

입술과 혀와 목이 즐기고 위로 스프르 넘어가는 과정, 그것은 맥주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닐 수 없다.

글라스나 호프잔.

잔은 기름기 없이 깨끗해야 한다. 정성껏 닦고 말려야 한다. 맥주를 마시기 전 잔을 살짝 냉장고에 넣어 시원스레 만든 후 맥주를 따르면 그 맛이 어릴 가 쥔는가.

우리는 보통 느끼고, 또 말한다.

“레스토랑이나 호프집에서 마시는 맥주맛과 집에서 마시는 맛이 다른것은 왜 그렇지?”

그것은 앞에서 말한 3대 요소를 얼마나 잘 지켜주었느냐가 관건이다. 병맥주와 강통맥주를 따를때, 강통 맥주는 조금

은 천천히 따르는 것이 맥주 속에 감추어진 탄산가스를 뽑아내는데 아주 좋다.

이처럼 어느 술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애용되는 맥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고, 또 마시고 그 생산량이나 애용도는 다른 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일반적으로 맥주는 그 성분을 쪼개어 볼 때 수분이 92% 알콜이 약 5~6% 탄산가스 0.5%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수반되는 원료로 맥아(麥芽)와 호프, 특히 호프는 맥주의 쓴맛을 내는 아주 특유한 원료로서 호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흔히 마시는 청주나 소주는 대개 20~15도, 와인 12도, 맥주 5~6도로 보면 목이 마를때 꿀꺽꿀꺽 목을 넘기는 그맛은 비교할 데가 없다.

생전 유흥열(柳洪熱·성균관대 대학원장) 이관구(李寬求·경향신문 주필)씨 같은 분은 맥주가 한순배 돌고 나면 “좀 독한술 없나...”해서 후배들이 얼른 위스키나 소주를 대령하면 매우 흡족해 했다.

맥주에 소주를 타는것을 ‘맥소’라 하던가.

맥주의 기원은 바빌로니아,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실제로 근대화 된 맥주의 생산은 1600년대 미국과 독일에서 연유된다.

미국은 지금 맥주대국(大國)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독일은 맥주의 종주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1516년 빌헬름4세가 선포한 ‘맥주 순수령(巡狩令)’은 이렇게 규명하고 있다.

그는 “맥주는 대맥, 호프, 물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선포, 지금 독일은 ‘세계최초의 식품·음료에 관한 법률’로 지켜나가고 있다.

일본은 1870년 외국인들에 의해 맥주 기술이 도입되었다. 지금은 맥주제조 기술이 발전, 세계 7위를 자랑하는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33년이 그 효시다. 맥주를 이야기 하자면 끝없는 화제가 솟아 오른다.

그러나 그 맛은 아는 사람만 안다.☞

운동 선도 확립 노력

마다 유서를 써놓는다. 둘째, 상속권자들이 유산으로 무위도식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해 선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친다. 셋째, 이 운동이 소리 없이 번져가도록 주변 사람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누룩처럼, 향기처럼 번져나간 이 운동은 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모교의 장학재단 설립기금으로 회사한 분들이 많았다는 것. “물질에 대한 올바른 지혜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뿌리를 내려 금지를 느낀다”고 덧붙인다.

正義: 정체성확립 우파운동

2003년 3월 1일 낮 서울시청 앞 광장. 김정일의 핵무장과 전쟁책동 대남 공작을 저지하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것을 다짐하는 반핵·반김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종교계, 재향군인회 회원, 이북도민회와 시민 등 수 십만 명이 참가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외쳤다. 그 날 국민대회 연사들을 소개하며 사회를 맡은이는 김경래 집행위원장이었다. 그 해 6월 2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기도회’가 열렸다.

— 보수 우파 운동에 앞장서게 된 동

받았다. ‘애국가와 안익태’ ‘사회부기자 미국르포’ ‘사회악과 사교운동’ ‘의식구조개혁론’ ‘한국기독교100년총람’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술하에 2남 6녀. ‘자식농사’도 잘 지었다. 범죄학 박사인 장남 容眞씨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차남 容賢씨는 재미 IT 기술자. 장녀 元惠씨는 재미의사, 차녀 元淑씨는 1995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UN후

원 미술인’으로 선정된 재미화가, 셋째 딸 元和씨는 성악가, 넷째 딸 元美씨는 피아니스트로 이탈리아 거주, 다섯째 元珠씨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볼티모어 오케스트라 활동, 막내 딸 元禧씨는 첼리스트로 피버디 음대 교수다.

59년 동안 애환을 함께 해온 아내 車恩姬(79)여사를 2008년 3월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고 외손자와 함께 지내며 여전히 열정을 불태운다.☞

아버지! 언론인 우리 아버지!

김수웅 회우 아들

김 원 배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제재형 회우 아들

제 성 호

중앙대 교수 · 인권대사



지연홍 회우 아들

지 혜 구

이지함피부와 원장



아버지께 지금이 ‘제2의 전성기’가 아닐까 한다. KBS 사우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이다. KBS 라디오편성국장과 대구방송총국장을 거쳐 1994년 퇴직을 하시기 전까지 아버지께선 무척 바쁜 분이였다.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직장을 다닌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랬듯 아버지도 귀가가 늦으신 편이었다.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존재감이다.

한번은 아버지께서 지방 방송국에 근무하실 때 직접 진행하던 라디오 좌담 프로그램을 들은 적이 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직접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으니 무척 신기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누가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묻기라도 하면 “방송국에 다니신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했던 기억도 난다.

아버지께선 언론계에 계신 분답게 신문을 열심히 보셨는데 그 영향 때문인지 나도 어린 시절부터 집에 오는 신문을 열심히 보게 됐다. 그 덕택에 상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학교 공부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 지금 신문기자를 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싶다. 군복무를 마치고 진로를 정할 때 언론계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번도 아들이 가야 할 길을 강요하신 적은 없다. 대학에 진학할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나, 결혼을 할 때도 그랬다. 작은 일에 시시콜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다. 그래도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꼭 지적을 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것은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공무원이 아니었지만 공영방송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답게 항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신문기자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이런 가르침은 항상 마음 속에 새겨두고 있다.

아버지께선 자식들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땐 꼭 함께 해주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와 함께 남이섬으로 회사 행사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만 여기서 길을 잃고 말았다. 순경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파출소에서 울고 있는데 나중에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반갑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대학을 휴학하고 입대할 때 논산 훈련소까지 같이 가주셨고, 신병수료식을 할 때 회사의 파업 사태로 못 오시게 되자 편지로 애절한 마음을 표현해주셨다. 그런 편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군대 초년병 시절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아버지의 편지가 큰 힘이 됐다.

나이가 40이 넘었고 두 아들의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나에게 큰 버팀목이다. 집안 대소사를 아버지께 의존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항상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인가 보다.

손자들에게도 정말 좋은 할아버지다. 애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른다. 손자들도 할아버지의 장점을 배우고 그런 가르침 속에서 훌륭하게 자랄 것이다. ☞

자식 자랑하는 아버지를 불출(不出)이라 하여 못난 이로 치부하지만 부모 자랑하는 자식을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부모님을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아 머뭇거리진다. 그러나 “아버지를 말하라”는 ‘대한언론’의 원고 청탁에 한참 망설이다가 부득불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몇 자 적기로 한다.

아버지(尺山·諸幸馨)는 일생일업의 영원한 언론인이시다. ‘기자’란 직함을 즐겨 쓰신다. “언제 무슨 소식이 걸려올지 모른다”고 항상 전화기를 열어 놓으신다. “뉴스 소스를 밝히는 기자는 이미 기자가 아니다”란 말씀은 기자는 6하 원칙에 따른 기사로만 말한다는 기자정신의 표현으로 들린다. 기자는 억강부약의 자세로 정론직필을 펴는 문사(文士)라는 지론(持論)이시다.

아버지는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 메모하기를 즐겨하신다. 기억은 틀리기 쉽다면서..., 아버지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하시다. 6·25 전쟁 때의 이야기. 산에 떨어져 소나무 가지에 걸린 불발 레이판탄을 수거, 지게로 지고와서 대밭에서 이를 분해하셨다. 폭발뇌관을 풀고 화약은 구충약으로, 낙하산 줄은 주머니 끈으로, 동근 양철은 두레박으로 썼다는 것.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셨지만 온 가족은 혼비백산했다고 한다. 고향 자실(尺谷)의 전설 같은 실화다.

아버지는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이셨다. 대학시절 도시락 2개씩 싸갖고 9시부터 17시까지 강의를 들어 졸업학점(180학점)보다 80학점을 더 땀가 하면 동기생인 어머니(권영순)와 함께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도 받으셨다. 야간 국제웅변대학을 다녀 웅변술을 익혔고 방학 때면 고향에서 서당공부에 힘써 한학 실력을 넓히셨다. 비오고 안개 끼는 날 늑대우는 공동묘지를 거닐며 간담을 키우셨다. 대학 2학년 때는 할머니(許必亥)와 백부님(諸廷圭)의 명을 좇아 할아버지(諸溶根)의 문집 ‘우당유고(愚堂遺稿)’를 간행하셨다.

신문기자 된지 4년만에 정치부 차장대우, 그 2년 후 정치부 차장에 발령될 만큼 기자로서도 열심히 뛰어 다니셨다고 한다. “활자는 총알이다”, “기자에겐 변명이 없다” “특종은 새벽에 난다”, “뛰면서 생각하다”는 명언(銘言)은 장기영(張基榮) 창간 사주에게서 배운 것이고 오늘까지 짧게 사시는 비결은 “일이 취미니 늙을 시간이 없다”는 것. 기자시절 태평로(옛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에서 중학동 14번지(한국일보)까지 자주 뛰어다니던 덕분에 다리 힘이 세다고 자랑하신다.

지칠줄 모르는 봉사와 섬김의 열정으로 작년엔 ‘사단법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을 만들어 초대 회장에 취임, 1천만 노년층 소비자의 권익보호·증진운동에 앞장서시는가 하면 ‘사단법인 영통포럼’ 회장으로서는 탈북자 정착지원사업 및 통일일꾼 교육·양성에도 힘쓰고 계신다. 라이온스연수원장, 한국JC연수원 교수부장 및 공무원교육원 교수를 역임하면서 후진교육에도 땀을 흘리신 아버지는 지금도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기라. 그리고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자손들을 훈계하신다. ☞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의 표본이라 생각 됩니다.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나가서 때로는 황소라는 별명을 직장에서 얻을 정도로 도전력 있는 자세로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1927년에 일제치하에서 태어난 불우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일찍이 명색한 두뇌로 서울공업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시고 가정환경이 어려워 중앙대학교 정치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이 후 6·25전쟁으로 군에 입대하여 헌병으로 국가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와 전쟁이라는 아주 고약한 시대의 희생자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처음 입사한 곳은 경제일보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어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으로는 그 당시 중앙대학 임영신 총장님의 추천으로 입사 하였고 후에 상공일보, 대동신문, 자유신문 등에서도 계속 기자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후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기업통보의 취재부장으로 7년간 재직하셨고 또한 시사통신사에서 근무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어느 회사에 계실 때 인진 모르지만 온 가족이 같이 가을에 밤을 파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밤나무 동산에서 짝 벌어진 알밤을 주으면서 너무 즐거워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 때 회사의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너무 행복했던 추억으로 남습니다. 또한 아버님 생신 때는 회사의 기자 분 모두 모여 큰 잔치를 벌이기도 했는데 양쪽으로 일렬로 앉아 술잔으로 건배하는 군기있는 조직의 모습이 마치 조폭모임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조사 때 서로 도우며 함께하는 모습들이 정말 기자조직이 날카롭고 힘들지만 때론 인간적인 모습이 물씬 풍기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후 언론사를 퇴직하고 건설토목업에 진출하였다가 부도를 맞고 고생도 많이 하였고 다시 오뎅이 처럼 일어나 새로운 사업을 하셨을 때는 정말 대단한 용기와 끈기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84세라는 노령의 나이에도 항상 건강하고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미래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 좋고 행복하며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 그 동안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너무도 힘들게 고생하셨고 저희 자식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베풀셨던 언론인이자 아버님인 지연홍님께 자식으로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님 만수무강하세요! ☞

가정의 달 思父曲

홍승국 회우
딸

홍수진

KBS 보도국 기자



기자촌 98호.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고의 성을 올리고 자리잡은 꿈속의 고향입니다. 유아시절+유년시절을 참말로 멋 모르고 자란곳.

집 마당에서 세발 자전거를 언니와 함께 앞뒤로 나뉘타고 놀던 그 마당. 그때 저에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정말로 어려운것 모르고 지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품속에서였습니다. 지금 한분이 안계시지만.....

그러니까 되돌아 보면 이름대로 기자촌!!

아마, 기자들만이 모여 한마을을 이루었던 그런 공간이었나 봅니다.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아랫집을 내려다 보아도 한결같이 기자들만이 모여 살던 그런 공간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기자촌을 벗어나 다른 동네로 이사해서 살때까지 '기자촌'이란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이들고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자촌은 북한산 자락이 서남으로 뻗으면서 진관사 골짜기를 이루고 또 그옆에 능선이 너럭해서 기자촌 부지를 만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약주만 한잔 하셨다 싶으면 예외 없이 되뇌이시던 독백이 있었습니다.

“야! 수진아! 이곳은 절터야! 절터! 사찰이나 지어야할 곳이지 어디 사람이사는 주택지로서는 잘못된 곳이야!” 저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계절따라 변하는 마당의 잔디 색깔, 그리고 담장따라 자생하는 흑장미, 황색장미, 흰장미, 붉은장미. 온갖 색깔의 향연! 5월, 라일락이 싱그러운 향기를 자랑하는 자족의 마당.(아버지의 자랑말씀)

그런것이 저의 기억입니다.

“수진아! 그렇게 오래 오래 잘 살다가 죽었대! 끝” 하면 끝 소리가 무섭게 end, fin은 알아 차려 가지고 “그래서~그래서~”하며 또다른 얘기를 채근하던 제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궁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늑대와 아홉 마리의 양새끼’ 그리고 ‘여우와 포도넝쿨+포도송이’ 등 이솝우화를 얘기하신 다음 그것을 녹음 테이프에 담아 언제고 얘기 해달라 칭얼대면 틀어주셨지요!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새록새록 재미가 있었고 듣다가 잠이들곤 하였지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참으로 세월을 느낍니다.

언제부터인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옛 얘기를 조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후인지?

반주 한잔 하시면 저에게 한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되짚어 생각하면 인생 교육적인 말씀이었던것 같습니다. “수진아! 사람이 철이들면 너의 두발로 굳건히 서는 것이다. 그리고 정문으로, 대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도 제 기억속에 쟁쟁합니다. “노동의 신성함”이란 제 목의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았어요!” 하였을때 주신 아버지의 도움 말씀이었다.

“수진아! 선 농부는 앓은 신사보다 귀하다는 서양의 격언이었다. 이 격언을 음미해 보라! 거기서 해답은 저절로 나올것이다.” 지금도 못 잊는 대목-

옛날의 금잔디 동산에 매기... 기자촌 잔디밭이 매기의 추억과 오버랩되는 작금이다. [4]

오늘과 내일 4·19와 이승만

올해는 4·19가 발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반세기전 애국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쫓겨난 것이 4·19혁명이다.

관련단체와 언론기관들은 올해도 학술회의, 세미나, 토론회, 사진전, 문화상시상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조명하고 있다. 또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에는 4·19가 추구한 자유민주정의 통일을 표상하는 높이 4.6m의 원형 기념탑이 건립되고 수유리 4·19묘역에서는 열린음악회도 열렸다.

이러한 여러행사중에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 박범진)가 프레스센터에서 연 ‘4·19혁명과 이승만’이란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는 4·19기념일이 돌아오면 도식적으로 전개되던 4·19혁명의 역사적 평가나 의의, 이승만정권의 독재성, 4·19이후 민주주의 발전등과 달리 4·19혁명세력과 대적점에 있는 이승만과의 ‘화해’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사망했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 데도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를 물러나게 했던 4·19혁명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의 독립운동과정, 건국과정, 국가건설 초기 단계에서의 갖가지 주요업적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박이사장의 인사말에서도 잘 나타났다.

또 박이사장과 함께 4·19에 앞장섰던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는 ‘4·19세대가 본 이승만 전대통령의 공과 과’라는 주제발표 동기로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문제를 감정에만 묶어 둘 수 없어서”라고 밝혔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희년(禧年) 이야기도 했다. 구약은 50년을 희년이라 부르면서 이때는 빚진 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며 갇힌자를 풀어준다고 한다. 4·19혁명성공 희년을 맞아 민족내부에 쌓인 지나간 역사의 부채를 청산하고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리 현대사를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한 점이다.

우리사회에는 사실과 거리가 먼 이승만과 관련한 이상한 주장이 지금까지 횡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고 6·25전쟁을 유도했으며 정통성이 없다는 것등이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판치는 역사였으며 정통성이 없다는 주장이 최고 통치자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했다.

그들은 우리 역대 지도자와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이룬 풍요속에 살면서도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는 ‘갇힌 동굴’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해야만 성립될 수 있는 말이다.

이승만이 분단원흉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46년6월



도준호

· 본회사
· 전 조선일보논설위원

의 정음발언 때문이다. 남북 모두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남한단독으로 만이라도 선거를 해야 한다는 발언이 분단에 앞장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소련이 한반도 분단을 기정사실화한 조치를 취한 훨씬 뒤의 일이다. 스탈린은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한지 한달 남짓 지난 45년 9월 20일 북한에 공산주의 전단계인 이른바 ‘민주정부’를 세우도록 비밀지령을 했으며 이에따라 46년 2월 북조선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이승만을 분단원흉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씨는 소련멸망후 이러한 사실이 담긴 기록이 나왔는 데도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잘못된 현실에 심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김일성이 중국공산당이 국부군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데 고무돼 스탈린을 두 번이나 찾아가 애걸해서 동족상잔전쟁을 일으켰는 데도 그러한 사실을 외면했으며 이승만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건국했는 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이승만이 건국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한 이념으로 정착시키고, 싫다는 미국을 억지로 끌어들이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해 안보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승만의 공적으로 이밖에 교육입국, 농지개혁, 원자력연구개발등을 꼽았으며 과오로는 부산 정치파동등 집권연장 책동, 진보당 탄압과 조봉암사형사건, 6·25당시의 한강폭파사건, 국민방위군사건, 친일파옹호문제를 들었다.

이철순 부산대교수는 ‘미국, 이승만, 그리고 4·19’라는 다른 주제발표를 통해 이승만을 친미사대주의자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고 용미주의자로 평가했다. 국가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을 대했으며 이에 불편을 느낀 미국이 이승만제거계획을 여러차례 세웠다는 것이다. 이승만이 휴전회담을 반대하고 단독북진을 표명하자 이승만제거를 위한 예비레디계획을 입안했으며 4·19가 성공한 것도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반대한 미국의 입김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교수는 부산정치파동을 지금까지 이승만이 자신의 집권연장을 위하여 꾸민 정략적 사건으로 보는 전통적 해석과 달리 미국의 장면 용립구상을 저지하려는 이승만의 ‘저항’으로 보는 색다른 해석을 내 놓기도 했다.

독재와 장기집권 그리고 4·19의 그늘에 묻혀 지금까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되지 못했다. 모택동이 무리하게 인민공사를 추진해 수천만명의 중국인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1965년부터 10년동안 중국전토를 황폐화시키고 3천6백만명의 인민을 아사하거나 폭력에 희생되게 만들었는 데도 그의 공이 7이고 과는 3이라며 천안문광장에 그의 초상을 걸어 놓고 있는 중국에 비해 우리는 지도자의 긍정적 평가에 너무 인색하고 잘못을 너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세미나가 사실에 입각해 이승만의 긍정적 평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

5월 건강포럼 15일 개최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5월의 건강포럼은

스승의날인 오는 15일 오후 1시 50분부터 명동에 있는 ‘이운수·조성완 비노기과’에서 열린다.

이날의 연사는 나사렛대학교 방송미디어학과 교수 김상근 박사(사진)로 강의할 주제는 ‘노년, 행복할 수 있어야 장수 한다’이다.



김상근 박사

김 교수는 KBS 프로듀서 출신으로 ‘체협 삶의 현장’, ‘좋은 나라 운동본부’, ‘TV는 사랑을 싣고’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새 프로 제조기’란 별명을 듣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열린 건강포럼에서 이운수 박사는 ‘부부건강학’이란 주제로 1시간 여에 걸쳐 강의했다. [4]

www.newplus.go.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보금자리

2



두부 한모, 고등어 한 마리, 파 한단을 사더라도
깎고 또 깎으며 알뜰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만기가 되어가는 전셋집 걱정에 한숨 쉬곤 하셨는데
이제 ‘보금자리주택’ 덕분에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한결 행복해집니다.

보금자리주택 - new⁺

모두가 꿈꾸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름입니다



5월 13일은 원효(元曉)의 입적일이다. 원효는 진평왕 39년(617)에 현재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 밤골에서 태어나 신문왕 6년(686) 음력 3월 30일 서라벌 남산 기슭의 혈사(穴寺)에서 법랍 41, 세수 70을 일기로 장엄한 한 삶을 마쳤다.

이차돈이 거룩한 순교로써 신라불교의 새벽을 열었다면 원효는 중생의 바다에 가까이 몸을 던져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보살행으로 서민불교의 새 길을 닦은 선구자였다. 그는 불·법·승 삼보(三寶)에 귀의했다고 대중을 멀리 하지 않았고, 경?을?논 삼장(三藏)에 통달했다고 자만하지도 않았다. 그는 “부처의 경지에는 온갖 미덕이 갖춰져 있지만 그것은 오직 대비(大悲)를 그 힘으로 삼는다”면서 “한 사람의 중생이라도 버리지 말고 고힬에서 구제하자”고 외쳤다.

원효의 속성은 설씨(薛氏). 원래 화랑의 집안이었다. 그의 증조부 설원(薛原)이 화랑 중의 화랑인 풍월주(風月主)를 지냈으나 가세가 기울어 부친 설담날(薛談捺)의 벼슬은 하급관리인 내마(奈麻)에 불과했다. 태어날 때 모친을 여인 원효는 12세에는 부친마저 잃었다. 629년 8월 진평왕의 명으로 김춘추(金春秋)의 부친 김용춘(金龍春)과 김유신(金庾信)의 부친 김서현(金舒玄)이 고구려의 낭비성을 칠 때 출전했다가 전사했던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조부와 함께 살아야 했다. 그 조부도 5년 뒤인 원효가 17세 때에 세상을 떠나 원효는 완전히 홀몸이 되었다.

‘송고승전’ 원효전에는 “총각 나이에 불문에 들어와 스승을 떠나 학문을 닦았으며 노니는 곳이 일정하지 않았다. 교학자(敎學者)의 진영을 쳐부수니 그 앞에 대항할 자가 없었다. 이미 삼학(三學)을 남김없이 통달했다”고 전한다.

20세 전에 삼학에 통달하고 교학자들을 제압할 정도면 그의 학문의 경지가 매우 깊고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학이란 탐(貪)·진(瞋)·치(癡), 즉 탐욕·성냄·어리석음 등 삼독(三毒)의 번뇌를 여의기 위해 닦아야 하는 가르침인 계(戒)·정(定)·혜(慧)를 가리킨다.

황룡사에서 출가한 원효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당에서 전래된 수많은 불교문헌과 사상서를 섭렵하고 즐기게 파헤쳐 독자적으로 불교사상 이론의 체계를 세워나갔다. 원효는 어느 종파 어떤 이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엇이든 끈기 있게 깊숙이 파고들어 심오하고 미묘한 부처의 가르침을 깨우치기에 애썼다.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진덕여왕이 즉위한지 4년째 되던 650년에 원효는 34세. 그는 보다 깊이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 유학을 결심했다. 8세 연하인 의상(義相)과 함께 고구려를 거쳐 요동으로 들어가다가 고구려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첩자로 몰려 수십 일간 조사를 받다가 가까스로 풀려난 두 사람은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국토 분단의 쓰라림을 원효는 이미 1,300년 전에 절실히 맛보았을 것이다. 그는 뒷날 ‘법화경’의 진리를 설법하면서 “고구려나 백제, 신라는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갈파했으니 그는 참으로 먼 앞날을 내다본 선지자요 선각자였다.

서라벌로 돌아온 원효는 다시 불도를 닦는 한편 구법을 위한 행각에 나섰다.

溫故知新

元曉의 도끼자루



황 원 갑

- 본회 회우
- 전 서울경제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세월은 쉼 새 없이 흘렀다. 원효가 44세 때 백제가 망하고, 그 이듬해에는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이 즉위했다. 이때 원효는 다시 의상과 함께 두 번째 당나라 유학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망국 백제 땅을 가로질러 서해안에서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너갈 계획이었다. 그들이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한 포구에서 배가 뜰 때만 기다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다 쓰러져 가는 움막 안에서 밤을 보내던 원효는 잠결에 갈증을 느껴 어둠 속을 더듬다가 바가지가 손에 잡히자 거기에 담긴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인가!

간밤에 그렇게 맛있게 들이켠 물바가지가 실은 사람의 해골이었던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오장육부가 뒤집힐 정도로 구역질이 났을 법도 한데 다음 순간 원효는 이렇게 노래하며 춤추고 돌아갔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지도다.” 그리고 영문을 몰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의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 밖에 법이 없거늘 어찌 따로 구할 것이 있으랴. 나는 당에 가지 않겠노라.”

그 순간이 바로 원효가 대각오도(大覺悟道) - 크게 깨우침을 이룬 순간이었다. 원효는 의상과 헤어져 다시 서라벌로 돌아오고 말았다.

원효가 파계한 것은 이보다 앞서 무열왕 때의 일이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온다. 원효가 어느 날 상례를 벗어난 짓을 하며 거리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려나.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박으리라.”

자루 없는 도끼란 여자의 음문을 가리키고, 기둥이란 자신의 ‘물건’을 뜻함인데 아무도 무슨 뜻인지 새겨들지 못했다. 춘추왕(태종무열왕)이 그 노래를 전해 듣고 말했다.

“원효가 여자를 안고 아들을 낳고 싶은 모양이제. 그래서 나라에 큰 인재가 태어나면 그 얼마나 좋겠노. 그자?”

그러고는 요석궁에 있는 과부 딸과 원효를 짝지어 주었다. 그래서 태어난 인재가 신라 십현(十賢)의 한 사람으로 이 두문자를 집대성한 설총(薛聰)이다.

파계한 원효는 그때부터 속인의 웃음으로 바꾸어 입고 산수와 저자 간을 정처 없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효의 파계는 중생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보다 참된 수행의 길을 걷고 불법을 널리 퍼고자 하는 방편이었다. 파계는 했지만 환속까지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때로는 술집에 들어가고, 때로는 저지에서 자는가 하면, 때로는 산수 간에서 좌선을 하는 등 일정한 행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설법도 하고, ‘화엄경’의 내용을 소재로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기도 했으니 그것이 곧 원효의 중

생제도를 위한 새로운 포교 교화 방식이었다.

- 모든 것에 거리낌 없는 사람만이 한 길로 세상의 번뇌를 벗어나리라. (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 그래서 스스로를 무애거사(無碍居士)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효는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며 왕생극락의 정토사상을 중생의 마음속에 심어줌으로써 신라의 왕실 불교, 귀족불교를 서민불교, 대중불교로 승화시켰다. 그는 중생제도에 나서서 주유천하하면서도 정력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알려진 바로는 99부 240여권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전하는 것은 20부 23권에 불과하다.

또한 그는 무슨 학파니 종파니 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여 그 모두를 한 그릇에 담으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세의 길잡이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를 대중사회에 옮겨 화합과 통일이 깃들이도록 몸소 실천하니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일원화시킨 것이 바로 원효의 유명한 화쟁사상(和靜思想)이다.

원효의 명성과 ‘대승기신론소’ ‘화엄경론’ 같은 불후의 저술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및 서역까지 전해져 불교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성자요 보살이었던 원효가 세상을 뜨자 아들 설총이 유해를 부수어 소상(塑像)으로 진용(眞容)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과 사모의 정을 표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황룡사도 분황사도 모두 역사의 바다로 흘러가버렸다.

원효성사가 입적한 날의 다음 주인 5월 21일은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온 지 2554주년이 되는 날이다. 석탄절과 원효성사의 입적을 맞아 우리 불교의 현실을 잠깐 되짚어본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부처는 신이 아니고, 불교는 투철한 자기수행으로써 자신의 성불(成佛)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예수가 자기 가

르침을 기독교라 한 적이 없듯이 석가도 자신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믿으면 극락왕생하고, 믿지 않으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협박하지도 않았다. 살아 있는 동안 자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어려운 남을 위해 보시하라는 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요즘 일부 극소수 중들의 행태는 성직자나 수행자라기보다는 말법시대에나 볼 수 있을 악당에 가깝다. 종이 종다워야 스님 소리를 듣고, 염불보다 잣밥에 눈이 어두워 중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놈 소리를 듣는다. 스님이란 호칭은 중을 공경하여 부르는 ‘중님’이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식한 중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님이라고 하니 참으로 뻔뻔하고 가소롭다.

원효가 ‘도끼자루’로 구멍을 막고 기둥을 세우고자 파계를 감행한 깊은 뜻을 천학비재한 이 사람이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재무애 대각오도의 지고한 경지가 있었으리라고 짐작한다. 원효가 파계하고, 진묵조사와 경허선사(鏡虛禪師)가 곡차를 즐기고 고기도 먹었다고 해서 아무 ‘스님’이나 흉내 낼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중생을 사람답게 살도록 바른길로 이끌어야 할 성직자가 종이나 목사, 신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의 기복신앙을 악용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기도드리러 찾아온 여신도를 간음하거나 강간하는 것이 성직자의 탈을 쓴 자들이 할 짓인가.

또 가치관이 비뚤어진 현실참여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일부 극소수 좌경 사이비 성직자들의 작태도 그대로 두고 보기가 역겹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만 학자에게는 국적이 있듯이, 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종교인에게도 조국이 있지 않은가.

인간의 한 삶은 부평초같이 약하며 보잘것없고, 풍진세사가 초로처럼 무상하게 돌아간다.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고힬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마음에는 두 문이 있으니 하나는 열어야 할 문이요, 또 하나는 닫아야 할 문이다. 아직도 닫아야 할 문은 열고, 정작 열어야 할 문은 닫은 채 어리석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한시바빠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신문사진 인간애상’ 시상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국화 홀에서 사진인간애상 역대수상자들과 대한언론인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제20회) 사진인간애상 시상식을 가

졌다.

사진 좌로부터 강재훈 한겨레신문 사진부장, 홍원기 회장, 박수현 국제신문 사진부 차장, 서동일 파이낸셜뉴스 사진부 기자.

陸-海上서 바라 본 南美 文明地

한 달간의 남미 답사

정년 이후 해외여행은 그런 대로 많이 한 편이지만, 남미와 대양주만은 가보지 못했었다. 아프리카는 지중해 연안인 이집트와 튀니지를 가 보았을 뿐이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미를 다녀왔다. 주목적은 잉카(Inca) 문명의 유적지와 마젤란(Magellan) 해협 답사였다.

몇 년 전에 아메리카 고대文明 중 북미 멕시코의 마야(Maya)와 아즈텍(Aztec) 유적지는 가보았기 때문에, 이번엔 남미 페루의 잉카지역만 보면 되었다. 여행일정은 4주간,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5개국이었다. 처음 1주일의 지상투어, 중간 2주일은 선상 크루즈, 마지막 1주일은 다시 지상투어였다.

2주간은 선상 크루즈

현지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본 것이 바로 이과수였다. 이과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3국 사이의 접경지대였다. 세 나라 사이를 흐르는 강이 국경선이다. 세 강의 분기점에 3국의 국기가 그려져 있는 경계비가 서있었다.

폭포는 가도 가도 계속됐다. 그것도 이층 삼층으로 물기둥이 내려붓는다. 폭포가 모두 몇 개냐고 물었더니, 안내자는 수량에 따라 다르다면서, 폭포의 수를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다. 비가 와서 물이 많아지면 폭포가 합쳐져서 규모는 커지지만 수가 적어지고, 날이 가물어 수량이 줄면 큰 폭포가 가느다란 작은 폭포들로 나뉘어 규모가 작은 반면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라 한다.

폭포의 대부분은 아르헨티나 영역에 있다. 그러나 폭포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브라질 쪽에서 보아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폭포자원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브라질이 활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쪽엔 가지 않으면 안 될 곳이 있다. '악마의 목'(neck of demon)이라는 폭포의 핵심이다. 그곳 골짜기는 U자 형이어서 3면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려 한 쪽으로 흘러간다. 세 쪽에서 물이 내려꽂히면서 치솟아, 마치 지하에서 물줄기가 뿜어 나오는 것 같다.

우리가 간 날은 마침 흐린 날씨였지만, 주변엔 물보라가 하늘을 덮어, 맑은 날에도 흐린 것 같이 보인다고 한다. 그 물보라 사이를 이름 모를 까만 산새들이 마치 바다의 갈매기처럼 날아다닌다.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다

배를 탄 곳은 아르헨티나 수도항인 부에노스아이레스였다. 배는 9만1천t이나 되는 거함이었다. 이 배는 다음날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 갔다가, 이튿날엔 수도 몬테비데오(Montevideo)로 갔다. 몬테비데오엔 인디오(Indio·'인디언'의 별칭)의 기념 동상이 하나 있어서, 거의 없어진 원주민의 조각상을 볼 수 있었다.

배는 남미 대륙의 대서양 쪽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항해했다. 며칠 뒤엔 남미 대륙의 최남단이라는 칠레의 케이프 혼(Cape Horn)까지 갔다. 아프리카

의 최남단 항구도시 케이프타운과 같은 남미대륙의 남쪽 끝이다. 배가 케이프 혼에 기항하지는 않고, 해안을 서서히 돌면서 그 섬 일대를 보여주는 정도였다.

남진하던 배는 케이프 혼을 거쳐 U턴하여 북항했다. 몇 군데의 지방 항구도시에 기항했다가, 마젤란 해협의 연안에 있는 브라질의 폰타아레나스(Punta Arenas)에 도착했다. 남극대륙으로 가는 배가 마지막으로 들러, 준비를 끝내고 떠나는 항구다. 남극에 가 있는 연구원들이 휴가 나와 쉬고 가는 곳이라고도 한다.

최초로 세계를 일주한 탐험가 마젤란이 지났다는 '마젤란 해협'을 항해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마젤란 해협은 평범한 어느 해협이나 강과 같아서, 사진을 찍어도 이곳이 마젤란해협이라고 입



구 종 서

- 본회 논설위원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한국문명사 연구소장

속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리마(Lima)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무슨 번고인가. 우리가 한국을 떠날 무렵엔 지난 1월 홍수로 무너진 쿠스코(Cusco) 마추픽추(Machu Picchu)행 철로는 3월 10일까지 완공한다고 페루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발표를 믿고 출발했다. 그러나 4월이나 돼야 완공된다고 한다. 우리 한국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완공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 차례 회의를 연 끝에 그 일정을 잉카 고대문명의 시원인 나스카(Nasca) 문명을 보는데 쓰기로 했다. 나스카는 외계인이 와서 땅위에 그려놓았다고 알려진 대형 지상그림(地上畵)이 있는 곳이다. 나스카를 보기 위해 리마에서 버스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다. 길 주변은 모두 사막이었다. 남미나



브라질 쪽에서 본 거대한 이과수폭포. 폭포의 수가 몇이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증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래서 마젤란 광장의 마젤란 동상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한 방문증거를 찾은 것 같아 기뻐다.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 서해안에 도착하자, 부함장 이름의 증서 하나가 방으로 배달됐다. 케이프 혼과 마젤란 해협을 지났다는 '통과증서'(Passage Certificate)였다. 문명사 출판 계획을 세워놓고 세계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는 내겐 큰 기쁨이었다.

지진으로 무너진 칠레공항

마젤란 해협 서쪽을 빠져나온 배는 남미대륙의 서쪽 해안인 태평양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갔다. 2주일간의 선상투어를 마치고 칠레의 발파라이소(Valparaiso)에서 배를 내렸다. 남미대륙 해안의 50%를 배를 타고 순회한 셈이다.

우리는 발파라이소와 산티아고(Santiago)를 일별한 다음, 오후에는 잉카의 페루로 가기로 돼있었다. 마침 그 무렵 칠레에 큰 지진이 나서, 산티아고 공항건물이 대부분 파괴돼 있었다. 우리는 임시로 마련된 천막집에서 탑승수

페루에 사막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입지도 못했었다. 나스카에는 5시간을 달려서 도착했다.

나스카 유적 답사

사막의 지상그림들을 보려면, 경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러나 마침 비행사들이 파업 중이어서 비행기가 뜨질 않는다고 한다. 수소문 끝에 페루해군 항공대의 주선으로 무사히 그림들을 공중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잉카의 수도는 쿠스코, 전시수도는 마추픽추였다. 이번 여행의 최대목표인 쿠스코와 마추픽추 답사가 무산되어 유감스럽기는 했지만, 잉카보다 앞선 남미 고대문화의 근원을 보게 되어 그런 대로 자위했다.

잉카는 중세 말에서 근세초기인 12-16세기의 남미 대국이다. 잉카족은 기존의 남미 부족과 문화들을 모두 제압하여 종합했기 때문에, 잉카가 남미 역사와 문화를 총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나스카는 잉카보다는 1천년 앞서 이뤄져, 중국의 한나라와 유럽의 로마와 같은 시대의 고대문화다.

잉카는 주변의 여러 부족국가들을 점

령하거나 연합하여, 당시 남미에서는 가장 크고 강한 나라였다. 그래서 역사서들은 '잉카제국'이라 부른다. 당시 잉카의 지배영역은 북쪽의 에콰도르에서 페루 볼리비아를 거쳐 칠레의 북반부에 이르렀다. 안데스 산맥 서쪽의 산악과 해안 지역을 복속시킨 남미 패권국가(霸權國家)였다.

인디오 학살의 황폐지대

아메리카(美洲)는 역사적인 문화가 없는 황량한 곳이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 평화롭게 살고 있던 인디오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여 없앤 다음, 근대 서구문화를 그곳에 이식해 놓았을 뿐이다. 지금의 미주 문화는 동서양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시설들일 뿐이다.

남북 미주를 점거하면서, 유럽인들이 저지른 비인도적인 학살의 죄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들은 바로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충실한 신도요, 가장 문명된 인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백인들이었지만, 실제 행동에선 모두 예수를 저버린 배교자(背敎者)들이었다.

백인들의 잇단 대학살로 순수한 원주민 인디오는 전체 인국의 2~3% 정도라고 한다. 그들은 아마존(Amazon) 강의 정글이나 안데스(Andes) 산맥의 숲속에 들어가,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고 있다. 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도 안내지만, 정부의 혜택을 못 받고 투표권도 없다고 한다.

문자 없는 문명의 비운

아메리카에 문명이 있다면, 북미의 멕시코와 남미의 페루뿐이다. 4대문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의 초기문명이다. 남북 미주의 고대문화도 4대문명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류문명의 최초라는 4대문명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설한 고문명문화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마야 아즈텍 문화와 페루의 잉카문화도 4대문명과 다를 게 없다.

4대문명은 모두 나일 강,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강과 황하 유역에서 이뤄진 강변문화(江邊文化)다. 그러나 미주의 고대문명은 안데스 산맥의 높은 산악지대에 건설된 고지문화(高地文化)거나 페루 서해안의 모래밭에서 이뤄진 사막문화(砂漠文化)다. 그런 특성 때문에라도 인디오 고대문명은 당연히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문제는 마야나 잉카가 고도의 문화를 이룩해 놓았으면서도, 문자를 만들지 못해 기록해 놓은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인디언의 문화·역사의 한계는 바로 그런 문자부재에 있다.

미주 인디오들의 과거는 자체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하여 학살한 백인들의 기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세계사를 주도해온 서양사학자들이 자기네 범죄를 대담하게 시인하고 진실을 솔직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인디오의 문화와 비운은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 ㉠

전란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한때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안 앤더슨·Marian. Anderson'이 내한했다.

석간신문 기사마감을 하고 나가려는데 孫連亨편집국장이 불렀다. 미문화공보원에 가서 앤더슨을 인터뷰하라는 지시였다.

순간 나는 무척 당황했다. 영어로 인터뷰할만한 실력이 아니라고 꿈무늬를 빼니 "그럴 걱정이 없다. 한국인 직원이 통역해 줄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약속시간 전에 미공보원으로 갔다.

앤더슨은 약속시간에 인터뷰할 방으로 들어섰다.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정중히 맞았다.

키는 중키, 악수를 청해왔다. 난생 처음 여인과의 악수, 그녀의 손바닥은 분홍색인데 반해 손등과 팔목은 BLACK, 섬뜩했으나 내색을 할 수 없었다.

단독회견이 시작됐는데 답변이 너무 성실하고 상냥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긴 성악 생활을 통해 제일 감명깊었던 때를 묻자, 차근한 말씨로 아직 명성을 얻기전 지방 어느 소도시에서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에 있는데 지배인이 '토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마리안 앤더슨 來韓공연 取材

스카니니 아르투로·Tosca nini, Arturo' 씨가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있다고 했다. 토스카 니니는 미NBC교향악단 지휘자, 뉴욕필하모니 수석 지휘자, 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수석지휘자 등을 거친 당대의 세계적인 지휘자였다.

토스카 니니는 앤더슨에게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목소리이니 더욱더 정진하라는 극찬을 했다.

이때 내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느낌이었던 추억담을 차분한 말씨로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유럽으로 건너가 각국 큰 도시를 돌면서 공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 여파는 곧



정 준 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전쟁 종군기자

미국으로 퍼져 나갔다고 했다. 나는 일어서서 내 명함에 그녀의 사인을 받았다.

신문사로 가면서 나는 그녀의 인품과 성실, 상냥함에 취해있었다.

단독인터뷰 기사는 孫連亨편집국장이 직접 제목을 달고 편집해서 더욱 빛이 났다.

앤더슨의 내한 목적은 전방의 미군 위문공연이었다.

수도 서울은 도강과 피난민을 들여보내지 않았고, 전선은 지금의 휴전선과 거의 같았다.

다음날은 대청동에 있는 경남중고등학교에서 야외연주회가 열렸다. 급조된

단상엔 달랑 피아노 한 대, 청중은 운동장을 가득 메우고도 모자라 나무위에까지 올라가는 극성을 부렸다.

앤더슨은 미군위문공연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민주신보는 부산에서 제일 큰 제일극장에서 신문사주최로 연주회를 가졌다.

당일 청중은 구름처럼 밀려들었다. 예매를 했는데도 당일에 밀려들었다. 극장 출입문의 대형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극장종업원의 힘으로는 당해 낼수가 없었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자 초만원을 이룬 청중은 죽은듯이 조용해졌다.

그녀가 부른 흑인연가(黑人戀歌)는 가득 메운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1993년 4월 8일 AP통신은 그녀의 사망을 전했다. 향년 91세, 장수했지만 가난한 이름장수의 딸로 태어나 교회 성가대원이 되면서 성악재능을 인정받고 이탈리아 음악가 '그루스페 보게티·Glusppe Boghetti'에게 사사, 뉴욕 메트로 폴리탄오페라 무대에 올랐던 흑인최초의 성악가였다.

부음이 전해진 그날 나는 온종일 울적한 마음으로 지냈다.

권도홍 회우 自傳 '날씨 좋은 날에...'

회우들이 펴낸 新刊

시대의 의미를 촌철살인의 언어로 가려 뽑는 문사(文士)이기를 원했지만 시대의 어둠에 저항하는 투사(鬪士)의 삶을 살아야 했던 권도홍(權度洪) 회우(전 동아일보 편집부장)가 자신의 20년 기자생활을 '자전(自傳)'의 형태로 감칠맛 나게 담아낸 신간 '날씨 좋은 날에 불던 바람'(나남)을 펴냈다.

저자는 1955년 대학 중퇴자 신분으로 부산일보에 입사, 75년 동아일보 자유언론수호투쟁 사건으로 해직되기까지 만 20년을 신문 편집에 장인정신을 불어넣고자 했던 열정적인 기자였다. 그것도 "취재기자도 논설위원도 마다하고 오로지 편집에만 매달린 '열정적'인 편집기자"였다. 보통의 자서전과 거리를 두는 이 책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권도홍 회우의 투철한 기자정신과 강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1969년 3선개헌안 사건. 서슬 퍼런 유신정권이 민의를 거스르고 밀어붙인 3선개헌안에 대해 다른 모든 신문들은 '변칙 통과'라는 제목으로 뽑았지만 권 회우는 '변칙 처리'라는 제목의 1면 '떡볶'을 크게 뽑았다. 기자의 양심상 법리적 합법성을 의미하는 '통과'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처리'나 '통과'나 그게 그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제목에 대해 신문사는 물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중정)까지 압력을 넣었지만 권 부장의 신념을 꺾진 못했다. 또 중정이 3선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한 지면 전체를 통째로 기사를 가장한 광고를 밀어 넣은 것에 항의해 1면 지면안내를 통해 해당 면이 '전면 광고'임을 독자들에게 알린 것은 편집기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자 책무였다.

부산일보에서 출발해 한국일보, 민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을 거친 저자의 이력은 당대를 주름잡던 명필가, 대기자들과의 교류 기간이기도 했다. 거목 천관우, 신사 흥승면을 비롯해 권오기, 김중배, 손세일 기자 등과의 인연을 서술하는 대목은 독자들에게 '현재 우리 사회에 절실한 기자의 역할과 모습'을 고민하게 한다. 사람 욕심에서는 쌍벽을 이루는 조선일보 방우영 사장, 한국일보 장기영 사장과 인연도 흥미롭다. 유능한 인재를 끌어가려는 메이저 신문사들의 물밑작업은 '결국 신문은 사람 장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권 회우의 편집기자 생활 20년을 들여다보는 재미는 무엇보다 그의 감칠맛나는 글솜씨에서 배가된다. 소동과의 전·후 '적벽부' 전문을 외는 등 웬만한 고전을 모조리 섭렵한 저자의 광적인 독서 편력은 책 곳곳에 적절하고 날카로운 인용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30여 년 전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편집기자'라는 직업에 열과 혼을 다했던 저자의 이야기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아무리 편집의 레이아웃이 바뀌고 작업 시스템이 진보했다 하더라도 일의 핵심은 그 기본에 있기 때문이다. 편집기자의 위상과 역할이 날로 축소되는 이때에 저자의 고집스러운 편집기자 외길은 많은 울림을 준다. 독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이루고자 했고 결국 이뤘던 한 인간의 도전기를,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한 신문인의 초상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맹태균(본회 사이버위원장) 記



봄 야외 수련행사 초대합니다

5월 27일 양구 6·25전적지 방문

올봄 야외 수련행사를 5월 27일 6·25 전적지가 있는 강원도 양구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회우여러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출발 일시 및 장소= 5월 27일 오전 8시 정각 프레스센터 앞

△ 신청접수 = 5월 17~18일 양일

간 선착순 80명(사전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단 6·25 참전(종군기자 포함)회우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초청합니다.

연락처 : 02-2001-7621 732-4797



옥순봉 산행을 마치고 귀로에 금월봉에서 기념촬영.

만개한 벚꽃속 봄정취 만끽

본회산악회 정기산행 40여명 참가

맑은 봄날 호반의 도시 충북 제천에는 벚꽃축제로 관광객들이 한창 붐비고 있다. 본회 산악회는 지난 4월24일 충북 제천 청풍 호반의 절경인 구담봉, 옥순봉에서 올상반기 정기산행을 가졌다. 이날 산행에는 안종우 회장을 비롯, 김재영 지용우 원로 회우와 엄영섭 한국경제 사우회장, 김충한 경향OB산악회장 등 40여명의 회우가 참가했다.

안종우 회장은 이날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본회 산악회가 갈수록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고 말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한편 2시간여의 산행을 마친 회우들은 제천 벚꽃축제를 돌아본 후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송어회 비빔밥으로 오찬을 들며 흥겨운 하루를 만끽했다.

大韓言論人會 新入회우 환영합니다



김수남(金秀男) = 44년 4월 21일생
동아일보사 편집부 기자, 소년동아 부장
서울 마포구 망원 2동 506 탑건 아파트 101동 605호
전화 02-338-6334, 010-6310-6334



김충한(金忠漢) = 37년 1월 8일생
한국일보 오사카특파원 겸 지국장, 도쿄지사장 및 오사카 특파원 겸임,
도쿄 주재이사, 부사장, 현재 한국일보 사우회장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아이파크 삼성동 웨스트 Wing 2404호
전화 02-511-8448, 02-551-0102



이동훈(李東勳) = 45년 12월 8일생
신아일보 사회부 기자, 헤럴드경제(내외경제신문) 정치 사회팀장, 편집위원(부장),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부장, 신아일보 사우회 사무처장
서울 성북구 정릉 1동 우성아파트 104-505호
전화 02-915-2600, 011-776-1300



김영환(金永煥) = 47년 5월 25일생
한국일보 과학부장 뉴 미디어 부장, 한국일보 편집위원, 서울신문 인터넷 담당 부국장, 현재 자유 칼럼그룹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08-204
전화 2651-4547, 011-9745-4547



박우정(朴禹政) = 43년 3월 10일생
문화방송 보도국 사회부기자, 제 2사회부장, 보도제작 국장, 스포스 취재부장, 청주문화방송 사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삼성옴니타워 2604
전화 02-844-6339, 010-5461-0606



정한상(鄭漢祥) = 32년 7월 20일생
부산일보 기자 사회부장, 정경부장, 편집부국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상무이사 대표이사 사장, 상임고문.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동원보라아파트 104-1401 (우613-770)
전화 051-622-3377, 011-851-3377

회우동정 (가나다순)

‘연변자치주현황’ 강연



곽찬호 원로회우 = 2010년 3월 31일 성동구 보훈회관에서 중국 연변 자치주 현황 주제로 강연. 4월 22일 울진원자력 발전소 견학 ‘세계원자력 발전역사’ 해설.

기부문화 확산 공로패



박정 회우(전남일보 고문) = 최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민간복지 재원 확보 및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 받아.〈지난호 기사 정정〉

‘4·19와 이승만’ 세미나 개최



박범진 회우(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4·19혁명과 이승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울진원자력발전소 견학



배병희 회우 = 3월 26~27일 경제포럼 ‘논객들의 세상보기’ 울진원전 시찰단 43명을 인솔하여 울진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고 동해 해신당과 남근공원, 불영사 등을 둘러봤다. 시찰단에는 본회 후원기 회장, 제재형 고문, 송두빈, 송호빈, 이두석, 맹태균, 정종표 회우가 참여했다.

‘손세일의 외교평전’ 다시 연재



손세일 회우(본보 논설위원) = 금년도 월간조선 3월호부터 ‘한국민족주의의 두 유형-이승만과 김구’를 다시 연재하고 있다. 손세일 회우는 2008년 2월호에 2부 연재를 마친 후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사료를 발굴, 연구하는 데 전념해 왔다.

4·19혁명 유공 건국포장



박용운 (사진 上左), **이청수** (사진 上右), **정범태** (사진下) 회우 = 4·19혁명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발전의 초석을 놓은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았다.

6·25 전적지서 기념식



지갑종 회우 = 유엔한국참전국협회 회장 지갑종 회우는 6·25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참전 용사 206명(영국 82, 캐나다 56, 호주 40, 뉴질랜드 28)과 함께 4월 16~17일 옛 전적지인 가평과 임진강에서 각각 전투기념식과 추도식을 거행하고 이 지역 중고생 60명에게 노병들이 마련한 ‘혈맹장학금’을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방 대한언론인회 회장단

대한언론인회 회장단은 지난 4월 2일 오후 3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퇴직

원로 언론인들의 애로와 고충을 심분 이해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힘닿는 대로 대한언론인회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언론가 소식

세계일보 유종관 사장 취임



세계일보는 유종관(68)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이 27일 사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유 신임 사장은 중앙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고려대 교육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을 거쳐 미국 TIBS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멕시코 총회장, 2000년

신문협회 부회장 5명 선임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4월 26일 부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선임했다. 조선일보 변용식 발행인, 중앙일보 송필호 발행인, 한국경제 신상민 발행인, 경인일보 송광석 발행인, 부산일보 김종렬 발행인

5월 생신 축하드립니다

2일(고두현 권도홍 호영진) 3일(최선희) 4일(이경식) 5일(이 휘) 6일(안현태) 8일(김두근 문준호) 9일(김진기) 10일(박정규) 12일(김재근) 13일(서옥식 정준모) 14일(유지형) 15일(김도진 나용경) 16일(김남술) 17일(노영태)

19일(조덕일) 20일(문준철 박기병) 21일(김경중 김재영 성재삼 조규진) 23일(강승훈 이지웅 정서구) 24일(김윤곤) 25일(김영환 박종서) 25일(최신호) 26일(김용수) 27일(전남석 한영탁) 28일(오정수) 30일(장효상 장창영)

회비납부

2010년 = 구본건 국기일 김용수(2011 포함) 김정기 문준철 손일근 송호빈(09년 포함) 신동식 심재복 안현태 오정수 윤기병 정성진 정연복 조규함(09년 포함) 조두흠 한영섭 현원복

2009년 = 정서구

결혼

★ 김지용 회우=4월 3일 오전 11시 삼

성화재빌딩 장남 결혼

★ 임현태 회우=4월 22일 오후 7시 연세동문회관 아들 결혼

★ 조규진 회우=5월 7일 오후 1시 압구정 성당 아들 결혼

부음

★ 백일진 회우 모친상 = 4월 14일 고려대 안암병원

★ 정원복 회우 상배 = 4월 29일 분당요한 성당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영진 회우=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725-3번지 103호(우472-120)

★ 박범진 회우=서울 종로구 내수동 95 파크팰리스 103동 502호(우110-901) 전화 394-8002

★ 임학수 회우 사무실=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번지 대원빌딩 104호(100-101) 한일관광대행사 02-2020-2080

★ 임학수 전남석 회우=서울 은평구 진관동 105 은평뉴타운 330-1001호(우 122-200)



2010 G-GLOBAL AVIATION IN ANSAN 경기국제항공전

2010. 4. 30 (금) ~ 5. 5 (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 (한국해양연구원 앞)

창공에 그리는 꿈과 희망!

Drawing Dreams and Wishes in the Sky

지상과 하늘에서 펼쳐지는
아시아 최대 비행 퍼포먼스

- 이소연과 함께하는 항공우주체험
- 대륙별 세계 챔피언이 이끄는 Air-Show
- 항공기 및 헬기 탑승체험
-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딩 체험



입장료

- 성인 : 만 18세 이상 ~ 만 64세 이하 3천원
- 아동 · 청소년 : 만 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2천원
- 무료 : 만 5세 미만 영유아, 만 65세 이상

주최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안산시

주관



경기관광공사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www.skyexpo.or.kr

후원 : 국토해양부 / 지식경제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한국항공진흥협회 / 대한민국항공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서대학교 / 한국항공소년단 / 대한스포츠항공협회 / 대한민국일반항공협회

준비된 기업이 한발 더 앞서갑니다

전시회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요자가 공급자를 방문하는 것” 입니다.

준비된 기업의 앞서는 마케팅 수단이며

자사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KOBA 2010

제20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
2010.6.15-18/COEX www.kobashow.com

KIPES 2010

제17회 국제인쇄산업전시회
2010.9.8-11/KINTEX www.kipes.com

KIMES 2011

제2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1.3.17-20/COEX www.kimes.kr

koplas 2012

제21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전시회
2012/KINTEX www.koplas.com



(주)한국이앤엑스(KOREA E&EX)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 2001호 T.(02)551-0102 www.eandex.co.kr

